

안전보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vol. 257 2011 January 01

Special Report_ **소통의 길을 묻다**

KOSHA FOCUS_ 2011년 공단 사업추진방향

안전느낌표_ (주)경인양행 시흥공장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

- 벤자민 프랭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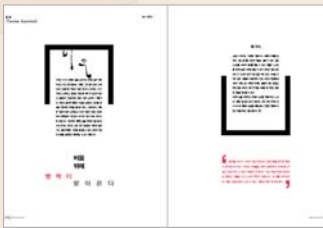
독자의 소리

〈안전보건〉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안전보건〉을 읽으신 후 느낀 소감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술을 다스리면 인생이 즐겁다’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지만 과음은 건강을 해치고 사고를 유발하며 결국에는 가정파탄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Special Report에 소개된 술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읽고 술에 관해 제대로 알게 되었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히 정취를 즐기는 음주의 범위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경연(경남 진주시 금산면)



‘비움’에 관한 기사가 좋았습니다. 물질만능 사회에서 채움만 강조하다 보니 비움에 관한 것은 종교나 명상에서만 회자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비움과 채움이 순환되는 구조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움 활동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볼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탐욕과 허황된 욕망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연습부터 해야겠습니다.

정선희(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2동)



‘동절기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겨울나기’ 편을 잘 읽었습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기온 변화 등으로 안전사고, 화재사고, 건강장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부직포를 이용하여 미끄럼방지 조치, 난방기구 1m 주변에 가연성물질 방치하지 않기, 장시간 작업 시 수시로 손과 발을 마사지하여 동상예방하기 등 당장 내일부터 이들을 꼭 지키는 습관을 길러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렵니다.

박종원(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직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내용에 끼임, 절단, 낙하, 추락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소음과 진동에 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안전보건정보란의 ‘유럽연합의 소음정책’을 읽고 소음과 진동에 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소음표시 제도, 진동표시 제도와 저소음 기계 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경남 창원시 도계동)





Content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표지설명

이번호 표지는 (주)경인양행 시흥공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일매일 부지런히 사업장을 둘러보며 안전중심의 활동을 펼친다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재해 사업장의 건강한 에너지와 안전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보건 2011년 1월호 제23권 제1호(통권 257호)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노민기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박동기, 이지현, 박남규, 송세욱, 김일수, 황경용,
이주영, 김철현, 박태순, 서규성, 조성열, 박정수

담당 한성주(h97012@kosha.net) 032-5100-682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홈페이지 www.kosha.or.kr

제작 및 편집디자인 대통기획 02-516-3614

사진 e-cube 스튜디오

인쇄 두산동아(주) 안산공장 031-489-784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들은 각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간(안전보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위시 매거진'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3 독자의 소리
- 06 신년사
- 08 Issue & Focus
공단,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국제사회보장협회 산재예방특별위원회 '예방문화분과' 신설

Special Report

- 10 **소통의 길을 묻다**
소통의 시대에 메시지를 보내다
유명인들의 편지에 담긴 사연
140자 수다로 세계와 소통하다 <트위터>
안전메세지가 한눈에 '쏘~옥'

열정

- 22 KOSHA FOCUS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추진 계획
- 24 화제의 현장 I
국내 최초 '석면안전홍보관' 개관
- 26 화제의 현장II
'2010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서 부문별 대상 수상
- 30 KOSHA 파트너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 32 명예감독관 플러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2010년 하반기 행사
- 34 안전보건 초대석
김철민 안산시장
- 36 안전 노동들
SK건설(주)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현장
- 40 안전느낌표
(주)경인양행 시흥공장
- 44 화제의 명예감독관
OCI(주)익산공장 이재정 명예감독관
- 48 생활안전플러스
겨울철 유행성 독감·눈병 요주의
내비게이션 거치대가 위험하다!
- 52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선반작업 안전

행복

Theme Story - 시간

- 58 Theme Keyword
현재의 시간을 통해 미래의 나를 엿보다
- 60 Theme Mind
인류와 함께한 시계의 역사
- 62 Theme Touch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위한 방법
- 64 Theme Essay
강이 가르쳐준 시간의 속도
- 66 Theme Plus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
- 68 교과서 체험 여행
전남 해남
- 72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영숙 <누구나 가슴속엔 꿈이 있다>
- 74 행복한 재테크
2011 새해 재테크 전략
- 76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근골격계 위험이 있는 작업자를 위한 스트레칭
- 78 독자수필
우리 가족 스트레스 해소법
감동을 전해 준 봉어빵 할아버지
- 80 문화산책

안전보건 에너지

- 82 안전보건 FOCUS
2011년도 무재해 인증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84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벽돌벤딩용 테이프가 끊어지며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 86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침에 팔이 감기며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88 임업 중대재해사례
벌목 작업 중 엔진톱에 접촉하여 사망
- 90 KOSHA GUIDE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94 지구촌 안전보건동향
- 96 안전인증현황
2010년도 11월 의무안전인증 현황
- 98 KOSHA Info & 독자퀴즈

「조심조심 코리아」를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묘년(辛卯年)새해는 일터와 우리 사회에 안전이 문화로,
생활로 정착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를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안전분야에
서는 산업재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든든하고 활기찬 안심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사고
사망자 수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지금보다 15%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올해 우리 공단이 중점 추진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다발부문에 대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은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운영을 통해 최고 경영자가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업체
의 안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지킴이, 현장
패트롤 활동 등을 구역별로 나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숙박업 등 재해다발 7개 서비스 업종은 지자
체, 직능단체를 통해 사업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 주도의 재해예방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안전보건 서비스 체계는 지역
의 산업구조, 재해특성 등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역중심의 예방활동을 활
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NGO 등 지역의 재해예방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직업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보건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화학물질관리, 작업환경개선 등 유해인자를 공학적, 기술적으로 제거
하거나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작업방법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제반 건
강 유해 요인들을 살피는 데까지 관심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즉,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보건」을 근로자 중심의



「**직업건강**」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보건관리 종합지원과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등 보건 기초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160만개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정부와 공단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해예방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민간위탁사업의 수행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전문가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파트너 기관들과의 실질적,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ZERO’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의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10년 전보다 8배나 늘어났고, 고령·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변화추세에 맞는 예방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안전문화 사업을 통해 안전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은 경제제이고, 산업재해는 사회현상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

우리 공단은 지난해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의 슬로건을 ‘조심조심 코리아’로 정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늦고 불편하더라도 ‘빨리빨리’를 버리고 ‘조심조심’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심조심 코리아’를 국가 전체의 안전슬로건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위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안전 앞에 늘 겸손’ 함으로써 ‘조심조심 코리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나와 가족, 동료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첫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 1.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민기

“깨끗한 공단, 청렴한 공단 만들어 나갑니다”

공단,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는 ‘우수기관’에 각각 선정되었다.

공단의 이번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시책평가 ‘최우수기관’과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193개 기관에 대한 ‘2010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노력도’ 등 전체 8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총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공단은 10점 만점에 9.03점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공단은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경험의 전무로 나타나 9.01점을 획득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9.09점으로 조직 내부의 청렴 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단은 그동안 외부기관의 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직원 부패행위 발견 시 감사에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인 청렴 핫(HOT)라인 운영, 외부 부조리 예방, 감시시스템인 청렴 옴브즈만 제도 도입, 직원 청렴 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해 부패차단과 청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성을 유지하고 반부패 예방노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 세계 재해예방문화 이끈다”

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산재예방특별위원회 ‘예방문화분과’ 신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을 채택한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서울) 안전보건대표자 회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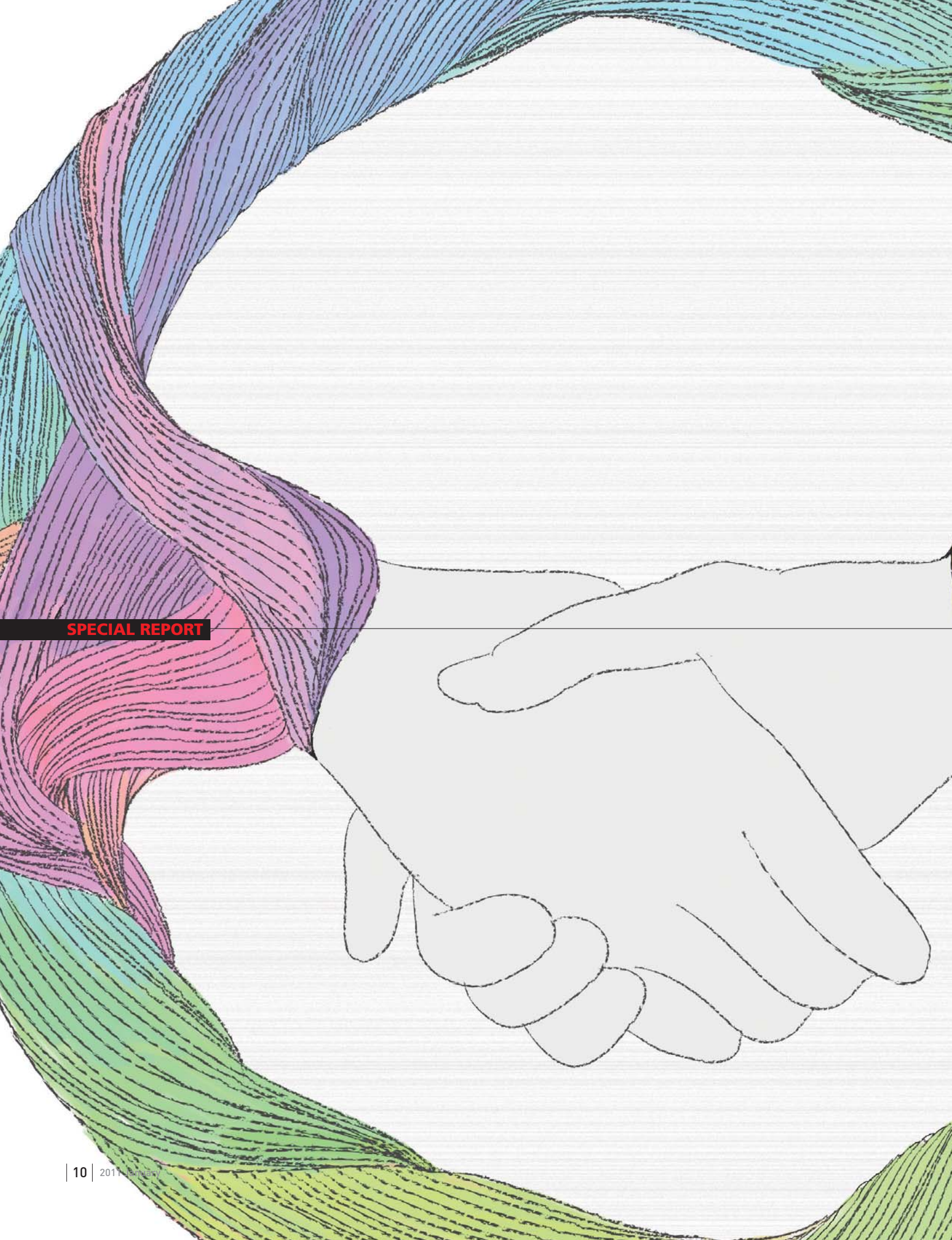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사회보장분야 국제단체인 국제사회보장협회*의 ‘예방문화분과’ 신설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사회보장포럼 및 제30회 국제사회보장협회 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전 세계적 실행확산을 위한 ‘예방문화분과’의 신설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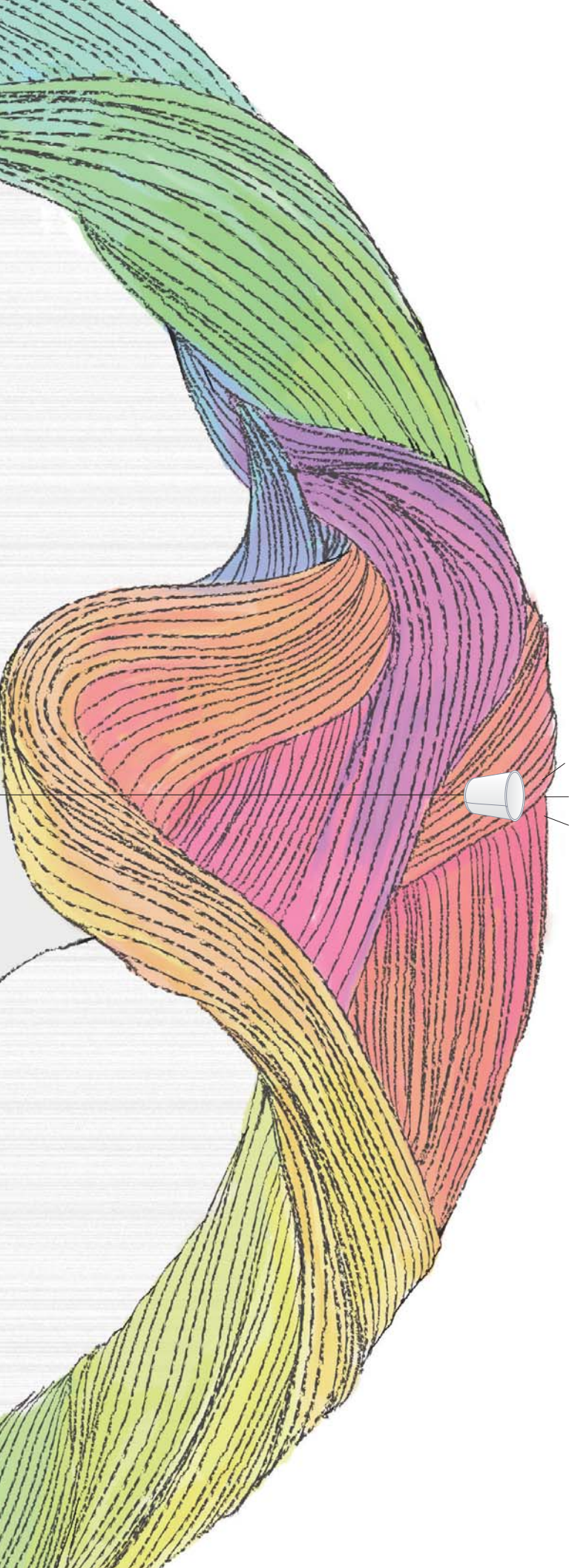
공단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채택된 국제적 안전보건헌장인 ‘서울선언’의 이념을 확산하고 전 세계적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분과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로써 공단은 국제단체의 산재예방특별위원회 예방문화분야에서 의장기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국제적 확산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최대열 공단 교육홍보이사는 “국제사회보장협회 산재예방특별위원회는 세계 산업안전보건을 선도하는 국제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예방문화분과 신설로 공단이 의장기관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을 기반으로 전 세계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⑥

❑ 국제사회보장협회: 150개국,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분야 국제 비영리기구



SPECIAL REPORT



소통의 길을 묻다

핸드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통의 도구가 넘쳐나고 블로그, 트위터 등 나날이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지만, 사회는 여전히 소통의 부재로 열병을 앓고 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은 활발하지만 그로 인한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모든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통의 법칙, 유명인들이 전하는 아주 특별한 편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산업안전보건표지까지 다양한 소통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통의 시대에 메시지를 보내다



소통의 법칙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소통을 꼽을 정도로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이다. 소통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사용하고 있다. 소통의 시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서로에게 보내야 할까.

정리 | 유성원 참고도서 | 양광모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소통'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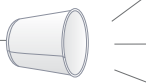
이솝우화에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식사에 초대했지만, 자신만 생각한 나머지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두루미가 이번에는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여우가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주둥이가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결국 여우도 식

사를 할 수 없었다.

이솝우화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아마 그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다시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생 원수로 지냈을지도 모른다.

만약 여우가 두루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내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루미가 여우의 잘못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서로 간의 오해와 불편도 없었을 것이다. 차이를 알지 못했던 여우도 문제였지만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을 악의로 되짚은 두루미도 문제였다.





이처럼 아무리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배경 지식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한다.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솝우화 속 여우는 자신과 두루미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회에서 혹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우와 두루미가 범한 불통의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한다.

‘먼저’ 열고 ‘깊이’ 받아들여라

소통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소통에는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게 된다. 결국 원하고자 했던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통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마음을 열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열려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독선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분노, 질투, 경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감정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대화를 시도할 때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해 주거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라. 또한 상대방의 강점이나 장점을 칭찬, 인정하여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통에 불만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실한 경청과 이해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 시간을 늘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전화, 문자, 이메일, 편지 등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시

도해 보는 것도 좋다.

넷째,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전달하라. 사람은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에 한 두 번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울러 내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라.

다섯째, 수용하고 양보해야 한다. 소통은 궁극적으로 수용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며, 관철이 아니라 절충이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어찌 보면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소통을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이다. 내가 ‘먼저’ 시작하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자. 또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으로 확인한 후,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쯤 자신을 돌아켜보며 앞으로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천재 화가의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고흐는 떨어져 있는 동생 테오와 어머니에게 항상 편지를 썼었다. 책으로 엮어낼 정도로 자신의 일상과 그림에 대한 생각을 늘 편지로 표현했던 고흐. 지금까지도 고흐의 편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 또한 당시 고흐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테오에게 이번에 내가 다녀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급히 편지를 쓴다. 꽤 오랫동안 만나지도, 예전처럼 편지를 띄우지도 못했지. 죽은 듯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으나. 정말 죽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편지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하버드대 진학준비를 다시 하기 위해 아카데미에 아들을 보내면서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전했다. 이 편지는 교사들에게 자식에 향한 부모의 진실한 마음과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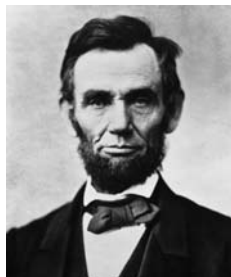
우리 아이의 지도자분들께 우리 아이도 세상사람 모두가 공평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건달만이 아니라 영웅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기적인 정치인이 있으면 일신을 바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원수가 있다면 아이가 늘 함께할 친구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질투와 시기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조용한 미소의 만족을 가르쳐 주십시오. (중략)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든 갈망할 수 있는 용기와 꺾이지 않고 맞서 도전할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숭고한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자라도록 지도해 주시길 이 편지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 빈센트 반 고흐

▲ 로댕

▼ 아브라함 링컨

▼▼ 마하마트 간디



한 여인을 위한 열정적인 사랑의 메시지

로댕 아내도 있고 불혹의 나이도 넘었던 로댕은 20살 까미유 끌로텔의 모습에 반해 수십 통의 편지로 사랑을 표현했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로댕의 편지를 보면 정열적이면서 흥분된 마음과 다소 격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까미유에게 '나의 광폭한 연인이여' 나의 불쌍한 머리가 아프다오. 나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오. 오늘 저녁에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우리가 다니던 장소들을 찾아 헤맸다오. 죽음조차 나에게도 부드럽게 여겨지오. 나의 최후는 어쩌나 길던지. (중략) 당신 모습을 매일 볼 수 있게 해주오. 오직 당신의 너그러움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오. 당신에 대한 나의 불타는 사랑은 너무도 순결하오. 당신이 나에게 동정을 가져다준다면, 그대 자신도 보상받게 될 것이오.

사랑으로 악(惡)을 감싸다

마하마트 간디 영국의 식민지로 갈수록 인도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간디는 당시 영국 총독에게 비폭력적 불복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영국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간디는 악(惡)을 악(惡)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다.

영국 총독에게 욕심을 던져 버리세요. 나는 한 포기 풀, 한 마리 동물, 한 명의 사람도 해치지 못합니다. 나나 가족들에게 끔찍하게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조차 나는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영국에 어떤 해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영국 사람들을 나쁘게 여기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영국이 인도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영국인들이 쓴 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한 영국인들은 영국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사실대로 알릴 줄 알았습니다. (중략) 영국이 온갖 욕심을 던져 버린다면 인도의 독립을 인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와 영국이 서로 돕고 행복해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

140자 수다로 세계와 소통하다

Search

트위터

최근 트위터는 소통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트위터 내에서 140자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심지어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언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통 수단이자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까지 엿볼 수 있는 트위터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글 | 김현지

Twitter 트위터로 통하는 세상 >

우리 사회는 지금 트위터 열풍이다. 2009년 초 5천 명이던 회원이 2010년 11월 기준으로 1억 7천 5백만명을 돌파했다. 소셜미디어로서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오바마 대통령, 이외수 작가, 김연아 선수, 기업 CEO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가입도 트위터 열풍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너도나도 트위터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소통의 방식 때문이다. 트위터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팔로우(follow, 친구등록)하면 팔로우 된 사람들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140자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화의 형식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 트위터 공간 내에서는 직급과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소위 트위터가 '대세'인 것이다.

궁금한 점을 트위터에 올리면 팔로우에 등록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유명 인사의 경우 일반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트위터 마케팅을 선보이는 기업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트위터의 정보전달과 의사소통 기능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140자의 메시지는 세계로 뻗어 지역과 환경 그리고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서로의 이야기는 물론, 그들 나라의 소식까지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트위터는 하나의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짧지만 강한 140자를 통해 트위터는 어느 노랫말처럼 'we are the world'를 현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Synergy 스마트폰과 만나 시너지효과 창출 >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트위터 사용자 또한 급격히 많아졌다.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관심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관심사에 대해 바로바로 소통하고 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다른 때보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로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뽑았다. 트위터에 '투표하자'라는 글이 올랐고 투표를 마친 이들은 자신의 투표 인증 사진과 관련 소감을 올리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지방선거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트위터의 활용성 또한 높아지리라 볼 때, 소통의 영역은 보다 넓게, 그 파급력은 더욱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Let's ~ 간단하게 따라 해보는 <트위터 사용법> >

이처럼 트위터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어렵다고 느껴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트위터 사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트위터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다.

먼저 www.twitter.com으로 접속한 후,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Sing up' 이라고 쓰여 있는 노란 박스를 클릭해 회원가입을 한다. Full name에는 자신의 영문이름을 입력하고, Username에는 트위터에서 사용할 이름을 적는데 영어로만 입력할 수 있다. Password에는 비밀번호를, Email에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차례로 입력한다. 이때 이메일 주소는 트위터에서 로그인하는 자신의 아이디로 사용된다.

로그인 후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Find People' 을 클릭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트위터를 볼 수 있다. Find People에서 친구 맺


Celebrity Twitter

국내외 유명인 트위터 주소

김연아 피겨선수 <http://twitter.com/Yunaaaa>
 김제동 방송인 <http://twitter.com/keumkangkyung>
 김주하 앵커 <http://twitter.com/kimjuha>
 박경철 외과 의사 <http://twitter.com/chondoc>
 박근혜 국회의원 http://twitter.com/GH_PARK
 박대기 KBS 기자 <http://twitter.com/waitingpark>
 박중훈 영화배우 <http://twitter.com/moviejhp>
 박지성 축구선수 <http://twitter.com/pjs1981>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 <http://twitter.com/Solarplant>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http://twitter.com/billgates>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http://twitter.com/yjchung68>
 오바마 미국 대통령 <http://twitter.com/BarackObama>
 이외수 소설가 <http://twitter.com/oisoo>
 이적 가수 <http://twitter.com/jucklee>
 차두리 축구선수 <http://twitter.com/robotdr22>
 황석영 소설가 <http://twitter.com/Hsokyong>

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이디를 입력해 상대방을 찾은 후, Following하면 된다. Following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신청하여 상대의 글 볼 수 있고, Followers는 상대가 나를 친구로 등록하여 내 글을 볼 수 있는 상태다.

'What's happening?' 라고 쓰여 있는 입력창에 140자 내로 글을 입력하면, Followers가 내 글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에는 별도로 사진 올리기 기능이 없어 사진 업로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고 링크를 입력해야 한다. 그 중 트윗픽(Twitpic)이 대표적인 사진 업로드 사이트로 트위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 트윗픽에 사진과 메시지를 올리면 트위터에 자동등록 된다. 

안전 메시지가 한눈에 ‘쏘~옥’

해외 산업안전보건표지

산업현장의 각종 위험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는 것이다. 전달력이 뛰어난 표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한눈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소개한다. 글 | 이강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대학원 재학 중

전달력 뛰어난 해외 산업안전보건표지

요즘 광고계에서는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한 입소문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평가되고 있다. 광고계의 입소문처럼 산업안전보건계에도 그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있다. 빠른 전달력과 파급효과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표지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해외안전보건 표지를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표지도 많은 개선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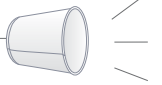
〈사진1〉은 일반인들이 착용한 스카프, 머플러 등이 원인이 되어 감김, 말림 등의 재해에 사용할 수 있는 표지이다. 기계설비 등이 많이 배치된 사업장(현장)에서는 충분히 제작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이다. 〈사진2〉는 머리 충돌 위험과 관련된 세르비아의 안전보건표지이다. 밑에 쓰여 있는 ‘opasnost od udara glavom’이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위 표지를 만들어서 부착한 사람들이 어떤 안전보건 메시지를 전



달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머리 충돌 위험’이라는 뜻이다. 〈사진3〉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로 안전모를 착용해 낙하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4〉는 손가락 절단 위험 표지이다.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고속 절단기나 둥근톱 등 칼날이나 톱날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형태이다. 아직 우리나라 표지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은 없는데, 임팩트가 있어 이런 표지도 참고할 만하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딱딱’ 느껴진다. 〈사진5〉는 넘어짐 위험 표지이다. 사람과 삼각형 장애물만으로 표현되었는데 아주 심플하면서도 무슨 위험요인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졌다. 이 표지는 크로아티아 표지로 우리말로는 ‘같은 층에서 넘어지는 위험’, 좀 더 의역하자면 ‘평면상에서 넘어질 위험’ 정도가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안전 메시지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해 흥미로운 안전보건표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끔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해외 안전보건표지에 웃음이 절로 나기도 한다.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사진6〉은 크로아티아의 안전보건표지이다. 높은 곳으로부터 추락 위험을 알리는 ‘추락 위험’ 표지이다. 뒷걸음질 치다가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진7〉은 어떤 의미의 표지일까? 달팽이가 보이고 그 위에 X 표시가 돼 있다. 물론 달팽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음식업 관련 표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달팽이로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느림(Slowness)’을 연상할 수가 있다. 달팽이와 ‘느리다’를 크로스오버 시켜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정답은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 같은 곳에서 느린 차량은 다니지 말라는 표지이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사진8〉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표지이다. 동물원에서 코끼리 등에 의한 충

돌·끼임 주의 표지로, 한눈에 알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사진9〉는 해외 안전보건표지 중에서 가장 특이한 표지인 듯하다. 보면 알겠지만, 화장실 변기에 구토하지 말라는 표지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해서 이런 표지가 만들어졌을까?

산업안전보건표지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각종 안전보건표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건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표지는 다소 형식적이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너무 요란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근로자들에게 위험성을 각인시키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예전에 만든 안전보건표지를 오늘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과 경향을 반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우리 공단에서 개발한 서비스업재해예방 스티커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인터넷 및 우편교육 수강안내



대한민국 안전보건 파트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사업장의 업무공백 부담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인터넷 및 우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터넷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과정)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과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학습기간 및 교육방법** : 1개월, 온라인 수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직무교육 홈페이지 (<http://www.dutyedu.net>) > 교육원
- **수료시 혜택(산안법 제32조 관련)** : **교육이수자는 수료증 발급 및 직무교육시간 인정**
- **교육장점**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장소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인터넷 원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교육희망 근로자
- **학습기간 및 교육방법** : 2개월, 온라인 수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가능
- **신청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 이러닝센터
- **수료시 혜택(산안법 제31조 관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인정**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산안법 제14조 제1항)



우편 원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교육희망 근로자
- **학습기간 및 교육방법** : 2개월, 교재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가능
- **신청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 이러닝센터
- **수료시 혜택(산안법 제31조 관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문의 사항

인터넷 직무교육 : <http://www.dutyedu.net> > 교육원
인터넷, 우편교육 : <http://edu.kosha.or.kr> > 이러닝 센터

열정 Passion

이마에 콧등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은
 '뜨거운 열정을 안은 사람' 이란 표시입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안전을 지키는 근로자들이 있어
 소중한 생명과 행복이 지켜집니다.



22	KOSHA FOCUS
24	화제의 현장 1
26	화제의 현장 2
30	KOSHA 파트너
32	명예감독관 플러스
34	안전보건 초대석
36	안전 노릇들
40	안전느낌표
44	화제의 명예감독관
48	생활안전플러스
52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추진 방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 한해를 산재사고 재해자와 사망자 수의 획기적 감소를 통해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 설정하고, 산재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정책목표인 ‘안심일터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주도의 재해예방사업 강화’, ‘산업보건사업의 영역 확대’, ‘민간부문의 안전보건 역량 증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보건 서비스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의 사업추진 내용을 통해 2011년 국내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큰 줄기를 살펴보자.

☞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 적극 추진

재해다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예방사업 추진

음식·숙박업 등 재해다발 7개 서비스 업종 30만 개소에 대해서는 직능단체를 통해 위험요인점검, 안전보건교육, 정보자료 보급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지킴이(80명)를 통해 패트롤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은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향상활동,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를 포함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기반을 구축 지원

노사자율의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지원(3,000개소→15,000개소)과 계층별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의 확대(405,000명→440,000명)를 통해 안전보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직업병 예방을 위해 급성중독 화학물질 및 석면 등 발암성 물질 취급사업장(900개소)에 대한 집중지도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8,000개소), 특수건강검진(110,0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안전보건문화 저변 확대에 앞장

안전문화 슬로건인 '조심조심 코리아'의 범국민적 확산을 토대로 안전보건문화 인증제 시행, 이달의 산재예방 달인, 트위터·블로그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아가게 된다.

☞ 지역주도의 산업재해예방사업 강화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별 산재취약사업장 안전-Care 시스템 구축, 물류센터 재해예방 등 지역특화사업과 라디오·생활매체를 통한 지역특화홍보, 지역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확대(4개소→6개소), 지역수요를 반영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한편 새해에도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이 계속된다. MOU 체결기관에 대한 인력, 재정, Know-how 지원과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약 운영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산업보건사업의 영역 확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보건 사업에서 근로시간, 작업방법 등 직업과 관련된 건강 유해요인을 살피는 '직업건강'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우선 작업환경개선, 고혈압·당뇨 등 기초질환관리, 건강상담, 영양지도 등 사업장 보건관리 종합지원사업(25,000개소)을 전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 운영(1개소→3개소)하고,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별 노·사 자율 건강관리활동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

☞ 민간부문의 안전보건역량 증대

민간위탁사업 부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우선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과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지표 등 평가체제를 보완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아가게 된다. 또한 지도요원 등 급관리, 민간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위탁사업의 전문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보건 서비스 확보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예비산업인력, 고령·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다.

먼저 제조·건설업 취약사업장 105,000개소를 방문하여 사고성 재해 예방을 집중 지도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산재취약계층 85,000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개발·보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해 나아가게 된다. ☺

국내 최초 '석면안전홍보관' 개관

석면의 위험성과
올바른 관리방법을 한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면을 주제로 한 안전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공단 본부에 '석면안전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석면안전홍보관'은 연면적 375.8㎡에 1층 규모로 조성되어 석면작업과 관련된 관리자와 근로자는 물론, 환경부·교육청 등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일반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석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석면안전홍보관'은 총 4개 테마인 '유해성 정보코너', '건축물 관리코너', '해체작업 관리코너', '건강관리코너'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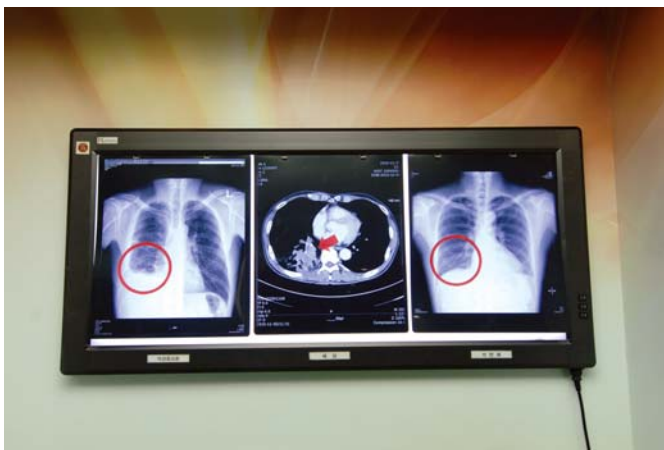
'유해성 정보코너'와 '건강관리코너'는 석면의 용도와 건강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 관리코너'와 '해체작업 관리코너'에서는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나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석면은 과거 '기적의 광물'로 불리면서 건축물의 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된 물질이었다. 하지만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의 제조·수입·사용·양도 및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미국은 1994년, 영국과 일본은 2006년).

이에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은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홍보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석면안전홍보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공단은 이번 '석면안전홍보관'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건설안전체험장'과 '가상안전체험관'을 연계해 안전보건 교육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석면안전홍보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이버 석면안전홍보관'도 구축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 '석면안전홍보관' 이용은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유해성 정보코너’와
‘건강관리코너’는
석면의 용도와
건강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 관리코너’와 ‘해
체작업 관리코너’에서는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나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단 미디어 우수성 대외적으로 인정



‘2010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서 2개 부문 수상

지난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 최고상과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편집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를 통해 공단 미디어 작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공단 미디어들을 소개한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제작된 사보, 홈페이지, 광고 및 공익캠페인, 출판물, PR이벤트 등에 대하여 21개 부문별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0년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출품되는 가운데 공단은 두 개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미디어 작품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 수상에 대해 “이번 TV캠페인의 핵심 컨셉인 ‘조심조심 코리아’가 국가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쉽고 명쾌하게 안전의 중요성 전달

TV 캠페인 '조심조심 코리아 -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은 TV 캠페인 '조심조심 코리아 -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편을 통해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에서 최고상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공단에서 직접 제작한 이번 TV 캠페인은 한 직장인이 바쁘게 출근하면서 계단의 장난감을 밟아 넘어지고, 사무실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벗었다가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뻔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이번 TV 캠페인은 가정과 일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쾌한 음악과 재미있는 화면구성으로 메시지를 쉽고 명쾌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안전문화 캠페인 슬로건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TV 캠페인 〈조심조심 코리아 -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편을 제작하고 방영하였다.

TV 캠페인 '조심조심 코리아 -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아침잠에서 일어난 남자는 출근 준비에 바쁘다.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 놓여 있던 장난감을 미처 보지 못해 밟고 넘어진다. 사무실에서는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교체하다 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건설현장에는 잠시 작업모를 벗은 사이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의 망치가 떨어져 아찔한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인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도 위험을 외면하면 사고는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현장감 있는 기획력과 활용성 높이 평가 건물관리업 재해예방 매거진 ‘안전! 넘버원!’



공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건물관리업의 재해예방을 다룬 <안전! 넘버원!>이 ‘인쇄사보 공공부문 편집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함께 안았다.

‘안전! 넘버원!’은 건물관리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특화된 매거진으로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출품된 200여 개의 공공부문 인쇄사보 중 현장감 있는 기획력과 활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7회차까지 발행되었으며 1회차에는 넘어짐 예방, 2회차에는 사다리 떨어짐 예방, 3회차에는 예초기 안전, 4회차에는 순찰 안전, 5회차에는 밀폐작업 안전, 6회차에는 분리수거 안전, 7회차에는 중량물 운반 안전 등 건물관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어렵고 딱딱한 안전보건 전문지에서 탈피, 취재를 통한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동기 공단 교육미디어실장은 수상 소감에서 “근로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직종별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넘버원!>은?



‘안전! 넘버원!’은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전보건 매거진이다.

건물관리업 종사 근로자의 작업 대부분이 경비, 순찰, 시설보수 등의 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의 재해가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여성 및 고령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건물관리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해 특화된 매거진 ‘안전! 넘버원!’을 지난해 6월 10일 창간했다. 이후 9월 30일까지 7회 차를 발간하여 전국 건물관리업 사업장 4,800개소에 우편으로 보급했다.

‘안전! 넘버원!’은 건물관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차별로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 취재, 실사 카툰형태의 재해사례, 건강 칼럼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존의 어렵고 딱딱한 안전보건 전문지에서 벗어나 현장취재를 통한 진솔한 목소리를 담았으며 사고사례 경험담, 사진, 삽화를 적절하게 수록해 독자들의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안전! 넘버원!’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7회분)로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 www.kosha.co.kr - (우측 하단)업종별 안전보건 자료 - 기타 서비스업 -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자료실)



기업 경영에 성공날개를 달다

S마크 안전인증 우수사례 단행본



“안전성이 곧 신뢰성이고 생산성이다. 실제로 S마크 인증 이후 매출이 크게 늘어 2006년 312억원 규모였던 장비사업부 매출은 지난해 521억원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 LCD 장비제조업체 오성 LST 장석준 상무

“출하 불량률이 2003년 약 11%였는데 2009년 1%로 뚝 떨어졌다. S마크 인증을 받은 뒤 제작시간이 단축되고 외부 실패비용과 검사비용이 줄어들면서 연간 6억 9천만원 가량을 아끼고 있다.”

- 반도체 · FPD 장비생산업체 에스티아이 김제환 이사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S마크에 도전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던 방식이 시스템화되면서 생산성도 좋아졌다.”

- 반도체 · LCD 이송장비 생산업체 로체 시스템즈 박기환 대표이사

「성공의 날개를 달다」 본문 내용 중에서



공단의 우수 단행본도 많은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최근 공단은 국내 안전인증제도인 S마크를 도입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 사례를 엮은 ‘성공의 날개를 달다’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S마크 인증을 받은 930건의 사례 중 대표적인 8개 기업을 선정해 안전인증을 받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인증을 받은 후의 성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소개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토종 안전인증제도인 S마크 도입 후 유럽연합의 안전인증제도인 CE(Conformite Europeenne) 마크보다 엄격한 심사로 불량률 제로를 달성한 국내 일본계 다국적 회사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을 S마크를 통해 직원 30명의 튼튼한 중견기업으로 만든 성공담 등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우수사례 사이사이 S마크 안전인증에 대해 사업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인증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궁금증

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 설명하였다. 이 책은 S마크 안전인증 관련 사업장 등에 우편으로 제공되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도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S마크는 ‘Safety’의 머리글자를 딴 임의 안전인증제도로 산업현장 기계기구의 안전한 유통과 사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97년에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2,750여 개 기업, 7,600여 개의 기계기구가 인증을 받았다.

박동기 공단 교육미디어실 실장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처럼 이젠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책 내용을 인용해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단행본이 이러한 인식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⑤

직능단체와 함께하니 서비스업 재해예방 ‘쑥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성공사례

작년 7월, 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건물관리업 재해예방을 위해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비스업 직능단체를 활용한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건물관리업에 대한 재해예방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개월간의 사업 결과 수행요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해증가율이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비스업 직능단체와 손잡다

공단은 2010년 들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 재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실’을 신설하고 서비스 안전⁺(더하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 제조, 건설과 달리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단의 인력 만으로는 재해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작년 5월 당시 서비스업의 재해자는 지난해보다 10.8%(1,372명)가 증가하여 애초 목표했던 서비스업 재해율 0.54%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특히 서비스업 중 전년 동기대비 재해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건물관리업(360명, 22.6%)에 대한 특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는 건물관리업종의 직능단체를 재해예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재감소 100일 특별

대책 과 연계·시행함으로써 2010년도 서비스업 재해율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성과분석 후 올해 안전⁺(더하기)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안전보건 컨설팅 인력을 배출하다

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업무위탁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위 10개 일선기관 소재 공동주택(3,500개소)을 대상으로 건물관리업의 재해예방 사업을 진행했다. 수행기간은 2010년 7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이었다. 우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업수행요원을 선발했다. 사업수행요원은 사업수행지역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6대 광역시(울산 제외)와 경기도 내 59권역 지부장급 임원 중에 현장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인원으로 선발했다.

총 선발된 사업수행요원은 119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이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0개 일선기관 주관으로 관내 수행요원을 대상으

로 간담회를 매월 1회 실시했다.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 수행요원들은 체크리스트 기법에 의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건물관리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설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정보자료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사업시행 기간 중 간에는 모니터링(190개소)도 진행해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다

사업이 끝난 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총 32,093명이 교육을 받았다(사업장 평균 9.2명). 서울지역본부가 7,8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교육실적은 경기서부 지역이 사업장당 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포스터, 스티커, 교육책자 등 안전보건 콘텐츠도 현장에 총 57,600부가 배포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해감소 실적이다. 특히, 수행기간(7월~9월) 동안의 재해 증가율은 11.3%로 나머지 기간(1월~6월)의 35%보다 무려 23.7%p가 낮아 건물관리업 재해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이번 사업은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에 직능단체를 활용한 최초 시범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공단의 한정된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직능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현장 점검이나 근로자 집합교육에 방문사업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며, 수행기간 중 민원발생 또한 한 건도 없었다. 추가적인 교육과 콘텐츠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것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앞으로 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사업을 계기로 타 업종의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도 활성화되어 서비스업 재해예방의 큰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MINI Interview

“건물관리업 재해예방 우리 손으로 만들어나갑니다”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국 국장

1. 공단과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작년 2월 공단이 추진한 서비스 안전+ (더하기) 사업을 안실련과 함께 했는데 사업을 마무리할 때쯤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함께 논의한 끝에 '단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업수행요원들의 활동 전과 후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죠. 이런 부분이 공감을 많이 얻었는지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는 다들 한 번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들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셨던 분도 계시고, 사업이 끝난 후 직접 사업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다행히 예정된 일정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3. 사업수행 후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 등 전체적인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건물관리업이 안전한 일터로 바뀌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장 관리소장님들도 많은 관심과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처음 시행했던 터라 준비기간도 짧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준비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4.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내 교육팀이 교육안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교육에 안전보건 사업이 추가된 것이죠. 또 '안심일터 만들기 협의회'에서 서비스업 직능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안전보건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걸음마를 떴었다면 올해부터는 재해가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업 관련 단체 중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산업재해예방의 깃발을 올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2010년 하반기 행사

안산시는 전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중 유일하게 시(市)에서 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안산시민의 안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협의회에 모범이 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카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2010년 하반기 행사’를 되돌아보았다.



안산시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지난 12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는 60여 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여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2010년 하반기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조심조심 코리아 스티커와 산업재해예방 깃발을 차량에 붙이고 카퍼레이드를 진행해 안산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고대의료원 안산병원 산업의학센터 박종태 소장의 ‘사업장 건강검진’에 대한 특강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김일우 팀장의 ‘반월시화공단 산업재해 발생원인과 재해예방 방안’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윤유영 의장

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장의 축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례로 들을 수 있었다.

지난달부터 안산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협의회 의장으로 새로 취임한 윤유영 의장은 “안전관리 활동은 혼자서 아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성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재해율을 0.6%대로 낮추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사고성 사망 만인율과 근로손실 일수를 각각 15% 감축하기 위해 안심ilter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했다. 그리고 이어진 3부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함께 산업재해예방 깃발과 조심조심 코리아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30여 대 차량이 일렬로 가



퍼레이드를 펼침으로써 안산시민의 시선을 집중시켜 자연스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안전문제는 시(市)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라는 점에서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안산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과 재반 단체의 안전 관련 업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안산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시행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참여함으로써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유일하게 안산지역협의회만이 개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깊다.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박태순 전문위원은 "안산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전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후원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안산시가 모범이 되어 다른 지역협의회에서도 안전관련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거주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안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위한 초석 다진다

김철민 안산시장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하지만 꿈만 꾸는 사람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김철민 안산시장이 바로 후자에 속한다. 그는 지금 안산 시민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도시' 안산을 위해 노력하는 김철민 안산시장의 열정과 꿈을 들어 보았다. 글 | 김현지

반월산업단지로 매주 목요일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산시 발전의 중심인 반월·시화산업단지에는 현재 150만명이 땀 흘려 일하고 있으며 약 7천개의 기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월·시화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안산시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해 반월산업단지 내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은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영을, 근로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산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해 재해예방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통해 정부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사업장의 사정



“안산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산업이 모두 보호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profile

1957년생, 現 민선 5기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 대학원 졸업,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안산시 건축사 협회 회장 역임, 상록신탁 조합 이사장 역임, 안산육상경기 연맹 회장 역임, 안산경찰서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역임, 참안산 공동대표 역임, 「꿈꾸는 도시, 안산」 저

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말 그대로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관련 활동의 도입과 운영방식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75만 시민의 생활 터전이며, 한 해 1조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통계에 의하면 매년 50여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치료 후유장애가 남아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1천4백 명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은 경제적인 액수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때문에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해예방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반월공단 전역과 시화공단 일부가 행정구역상 안산시 담당이며,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안산시민입니다. 이는 안산시장으로서 당연히 시민을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 앞으로도 꾸준히 재해예방에 힘써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안산시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통역지원 서비스’ 등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 상담클리닉, 가정폭력 피해여성 운영, 안산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등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안전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때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끝으로 시장님이 꿈꾸는 안산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입니다.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며 조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고 즐길거리가 있고,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이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조건을 바탕으로 안산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산업이 모두 보호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안산을 목표로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안전으로 위험의 근원부터 잡다

SK건설(주)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현장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지하철의 중요성만큼이나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크기도 막중하다. 때문에 SK건설(주)이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현장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안전’이다. 전동차에 오르는 시민들이 365일 행복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안전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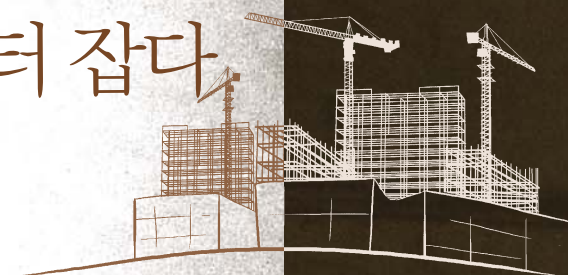
글 | 정준영 사진 | 안기성 e-cube 스튜디오

동북아 허브의 든든한 토대가 될 프로젝트

요즘 동북아 허브를 표방하며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인천의 성장세 덕분에 주변 인프라 구축작업도 날로 활기를 띠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프로젝트는 수도권 중심지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에는 경인선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운행하고 있지만, 서울 중심지로 바로 연결되는 이동수단의 편의성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 장암역을 출발해 서울 강북지역과 강남 중심지를 가로질러 온수역까지 이어지는 서울지하철7호선의 인천지역연장은 주변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흡족한 미소를 전해주는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사업은 서울 서부지역, 부천시, 인천 서북부의 인천도시철도1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10.2km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사업을 비롯해 수인선 연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1호선은 연장공사를 마치고 운행 중입니다. 또한, 송도신도시와 함께 신도시로 개발될 검단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도 한창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송도, 영종,







MINI Interview

(왼쪽부터)

- 서상기 기사 : 안전은 현장의 모든 시작과 끝이다.
- 임재식 주임 : 안전은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방지해야 한다.
- 함태식 과장 :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같이 추구하는 행복이 안전이다.
- 박민수 대리 :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판단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전이다.
- 조재홍 실장 : 안전은 말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 현장 확인점검이 필수이다.
- 김광윤 현장소장 : 안전은 시공 전 · 중 · 후 확인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며 안전관리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김민규 기사 :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 없는 완성이란 없다.



청라의 자유경제구역과 함께 인천을 동북아 허브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SK건설 김광윤 현장소장의 말처럼 이곳 현장은 향후 인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인천 시민들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느 공사와 달리 도심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지하철 공사 특성상 진척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특히 총 6개의 공구 중 SK건설이 맡고 있는 706공구는 상습침수 지역인 굴포천이 근접해 흐르고 있는 상태. 또한, 환승역을 만들어야 하는 부평구청역 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에 관한 긴장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철저한 기술검증으로 구축하는 안전

그러나 이미 수많은 지하철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SK건설이기에 이 같은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곳

현장에서는 애초부터 위험의 뿌리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른바 기술안전을 통해서 위험의 근원까지 다스리겠다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우리 현장은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써는 모든 악조건을 갖춘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공종과 장비에 대한 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기술에 중심을 둔 안전관리를 하자는 의지를 세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공팀과 함께 점검해나가는 겁니다.”

기술중심의 안전은 남다른 공법 적용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탑-다운(TOP-DOWN) 공법. 일반적으로는 가교를 세우고 밑에서부터 굴착을 시도하지만, 이들은 지상구조물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지하로 굴착을 병행하는 고난도 공법을 적용한 것이다.

“지하철공사 현장에서는 희귀한 시도였죠. 탑-다운 공법은 초기에 상부 구조물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더욱 깊게 기초 파기가 가능해 주변의 지반이나 근처 건물 등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도심지에서 가장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공법이기도 하고요.”

이는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된 방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지하층의 작업공간이 좁아 환기와 조명시설 등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안전관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서는 KOSHA18001을 통한 선진안전시스템과 함께 휴일관리감독자점검 제도를 시행해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거듭 무재해 기록을 연장할 수 있었다.

“지하철공사는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목적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추진이 예상보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무재해 준공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무재해 3배수까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찾다

2005년 8월 23일 첫 삽을 뜬 이곳 현장의 현재 공정률은 약 78%. 길었던 공사 기간도 어느덧 2012년 말 준공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함태식 안전팀장은 “공정률이 80~95%에 이르렀을 때 다양한 공정들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곳곳에 있는 지하매설물들을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5년 있었던 대구지하철 참사 또한 지하매설물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 여러모로 조심스럽죠. 우리 현장 역시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하수박스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하매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 번 이상 지하매설물 점검에 나서고, 작업구 주변마다 매설물을 추가로 보강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곳 현장에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열차가 공사구간 한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위험에 대비해 각종 계측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는 단 2종만 설치해도 무방하지만 경사, 균열, 액체침하, 하중, 진동 등 다섯 가지 계측장비를 인천도시철도1호선 지하구조물 내부와 하부에 5중으로 설치하여 실시간 위험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SK건설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6공구 현장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어 앞으로 이곳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마다 행복이 실릴 듯하다. 🌱



1 행복통로를 구축해 통행의 쾌적성을 높인다.

2 1일2회 지하매설물 점검으로 사고 위험을 줄인다.

3 안전팀 주간테마 점검제도로 정밀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우리만의 안전색깔을 만들어 나갑니다.”

(주)경인양행 시흥공장

갑작스레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코끝은 시리지만, 경인양행 시흥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열정적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때로 빠른 생산속도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생산성을 무조건 1순위로 두지 않는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생산을 강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여기는 까닭이다. 그래서 오늘도 경인양행 시흥공장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 정준영 사진 | 안기성 e-cube 스튜디오

섬유에 더해지는 염료를 생산하는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입는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살 곳이다. 통상적으로 의식주라 불리는 3대 기본요소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옷은 단순히 몸 위에 걸치는 형질을 뜻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유행과 문화를 창조해간다. 때문에 옷감을 물들이는데 사용되는 염료의 중요성도 전에 없이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염색하지 않은 하얀 의복을 주로 입는다고 해서 ‘백의민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지만, 현대 섬유산업의 메카가 된 지금은 섬유에 다양한 색을 더해 의복의 미학을 높이는 중심역할을 도맡고 있다.

1971년 설립되어 무려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경인양행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바로 섬유에 염색하는 염료들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4개 공장 중에서도 시흥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은 반응성 염료와 분산 염료. 비록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이곳 공장의 1년 생산량은 무려 6,700톤에 이른다. 그러나 워낙 많은



“경영진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근로자들도 회사의 의지를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왼쪽부터) 홍성호 부장, 조홍식 생산대장,
지영호 대리, 최진수 대리, 노연기 과장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잠시라도 방심할 수는 없다. 그들이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면, 금세 그 기회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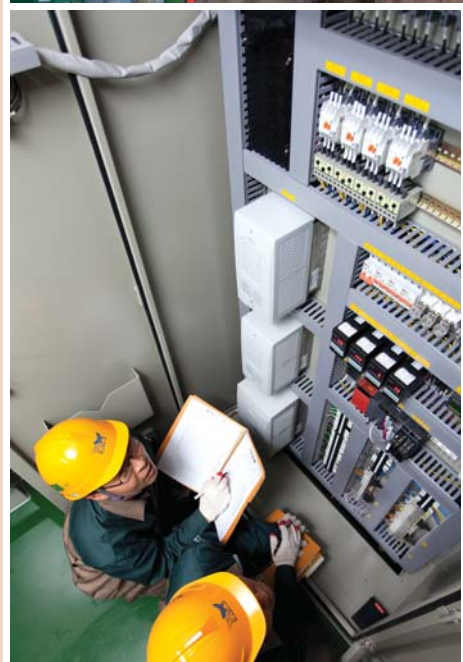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은 안전보다 빨리 생산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이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경영진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근로자들도 회사의 의지를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안전한 방법을 고민하다

이와 같은 노력 때문일까. 경인양행 시흥공장은 지난 12월 11일을 기점으로 무재해 9배수를 달성했다. 아무래도 무재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한 순간 방심하기도 쉬운 법.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실로 대단했다. 긴장의 끈이 느슨해질 때쯤 도입한 것이 바로 2009년 8월부터 도입한 정품, 정량, 정위치 및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질서 등을 아우르는 3정 5S 운동과 계획적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 아무래도 염료공장이라는 업의 특성상 주변 정리가 잘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컨설팅사의 지도를 받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외적인 분위기가 갖추어지자 남은 과제는 실행에 있었다. 그래서 경인양행 시흥공장은 과거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안전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전교육을 할 때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원 포인트 레슨’을 시행하도록 권장했다. 경인양행 시흥공장의 생산과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조홍식 생산대장은 “안전제안을 활성화하면서 2010년 1년 동안 300건이 넘는 안전이 제출됐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안전제안 덕분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를 비인화성 물질로 바꾸는 연구가 경인양행 중앙연구소에서 진척되어 성공적인 적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사실 직원들이 제출하는 안전제안들이 아주 거창하고 큰 사안들은 아닙니다. 대형안전이





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위험요소들에 관한 것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가는 소소한 위험요인들이 쌓이고 쌓여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도 안전제안 활동을 더욱 권장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활동성 높은 직원들을 뽑아서 연수원 무료숙박권과 소정의 상품을 건네며 포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경인양행 시흥공장에서는 일일 안전 순찰제도를 시행해 모든 직원들이 안전 활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안전활동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순찰일지와 개선요구사항들을 적은 안전시트를 경인양행 사내 홈페이지에 올려 이곳 시흥공장뿐만 아니라 경인양행 타 공장 직원들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경인양행의 네 공장은 서로서도 효과적인 안전활동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다. “아침에 안전체조를 할 때 직원들의 상태를 보고 그날 컨디션이 양호하면 파란색 리본을,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이면 빨간색 리본을 달게 하는 아이디어는 타 공장에 올라온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한 경우죠. 덕분에 작업 지시자가 그날 직원들의 상태에 따라 작업배치를 조절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관심과 체계적인 안전정책으로 안전지수 높여

경인양행 시흥공장이 첫손에 꼽는 무재해 9배수 달성의 원동력은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회사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다. 그로 인해 체계적으로 안전정책을 세우고, 그 방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영업부로부터 긴급 주문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산부서에서 수리대기 중인 설비를 이용해 급한 주문 건만 생산하려고 원료 준비에 들어갔지요. 그 과정에서 안전순찰을 하던 일일 안전관리자가 생산을 중단 시켰습니다. 생산부서에서는 ‘수리대기 중이라도 한두 번 사용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공무부서와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죠. 결국 공무부서에서 밤샘을 하면서 설비 수리를 마쳤어요. 덕분에 제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에피소드를 계기로 이전보다 사전 설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게 해서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홍식 생산대장은 “만약 생산을 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먼저 생각했다”고 전한다.

안전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은 습관이고 생활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경인양행 시흥공장 사람들은 무조건 ‘안전하자’는 구호만 외치지 않는다.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일매일 부지런히 사업장을 둘러보며 안전중심의 활동을 그치지 않는 이들. 무한한 에너지와 솟아나는 열정으로 앞으로도 무재해 10배수, 20배수, 30배수의 대기록이 거듭 경신될 것이란 기대감이 든다. 

Lee
Jae
Jung

생생한 목소리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다

OCI(주) 익산공장 이재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사업장은 생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안전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 누군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일도 필요하다. 때문에 오늘도 OCI(주) 익산공장 이재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보다 세심한 눈길과 손길로 사업장의 안전을 행기고 있다.

글 | 정준영 사진 | 안기성 e-cube 스튜디오



푸근한 미소의 안전파수꾼

삼한사온 현상 덕분일까. 한동안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더니, OCI 익산공장을 찾은 이날은 꽤 날씨가 포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들려오는 신종플루 소식에, 이곳 공장에서는 입구에서부터 꼼꼼하게 출입자들의 체온을 체크하며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큰 위험성이 예고되지 않았더라도 작은 부분도 결코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에서다.

“소소한 위험성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2년에 한번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혈압측정기나 체지방측정기 등 다양한 장비들도 구비해두었지요.”

이곳 OCI 익산공장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22년째가 되었다는 이재

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머물러온 곳이기에 앉은 자리에서도 현장 모습이 손바닥 보듯 훤히 것만 같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공장 곳곳을 둘러보는 열성을 아끼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현장근무자들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품질관리팀 실험업무를 맡고 있지만, 공정검사와 테스트를 위해서 현장에 자주 나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자리에서 현장업무를 하는 것보다 더 너른 반경을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한편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환경안전팀과의 파트너십으로 보다 안전하게

1959년에 동양화학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지난 2009년에 사명을 변경한 OCI는 전국 각지에 5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익산공장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다름 아

닌 과산화수소와 과탄산소다, 산소계표백제 등이다. 아무래도 화학제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생산과정은 거의 없다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회사에서는 환경안전팀이 따로 조직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과 소속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안전보건 관련 상황이나 교육 등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실제로 OCI 익산공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현판이 환경안전팀 사무실이었을 정도로 이곳에서 안전에 기울이는 관심도는 매우 크다. 이재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명예직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비롯된 영향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 ‘명예’라는 글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하자’는 생각

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으로 나선다.

“공장장님과 환경안전팀에서 실제적인 ‘안전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셨어요. 덕분에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한 방향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도 남다르다. 환경안전팀과 관리감독자들이 미처 보지 못한 시선, 즉 작업자의 관점에서 현장을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저 한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서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된다면 바랄 것이 없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작업위험에 대해서로 지식을 했을 때 서로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안전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안전

이처럼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나서는 그이기에, 지난 5월 있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수상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간 꾸준히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앞으로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금 고민해볼 것이라는 의지를 다진다.

이러한 열정은 비단 미래의 것만은 아니다.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이 일을 맡은 이후,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그가 기울인 공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 그렇기에 그가 지닌 안전에 관한 열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보니, 안전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안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정보들도 꾸준히 보고 있고요. 월간 안전보건도 매달 챙겨보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교육이 있다면 당연히 참석하고요.”

계속해서 안전공부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바 중 하나는 안전활동

도 지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0년에는 사업장에 ‘안전 활동지수’를 도입했다. 근로자들에게 아차사고 사례접수, 안전점검 활성화 등 다양한 안전관련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치화하는 작업을 병행한 것이다.

“사실 현장 개선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개선했다’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전활동을 독려했다고 하면서, 지적사항만 많이 접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적건수에 대한 개선율은 얼마나 되는지, 지적활동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연말에 점수를 잘 받는 부서나 개인에게는 포상도 했죠.”

이렇게 그는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안전한 내일의 청사진을 그린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전지식들을 지속적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전수하고 전파하며 OCI 익산공장의 안전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이재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는 뒷모습에 안전을 향한 그의 애정이 한껏 묻어나고 있었다. 🌱

겨울철 유행성 독감 · 눈병 요주의!

손 씻기 · 예방 접종으로 건강한 생활 즐길 수 있어

유행성 독감과 유행성 눈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 질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겨울철 유행성 독감과 눈병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유행성 독감의 증상 · 치료법

독감(인플루엔자)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데 주로 코와 목을 침범한다. 재채기나 기침으로 쉽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며, 사람들 간의 직접 접촉으로도 전염된다.

해마다 발생하는 독감 환자의 수는 다르지만 바이러스 변종이 세계적으로 퍼질 경우 독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수백만명이 사망하기도 한다.

독감 증상은 감염 후 24~48시간 안에 나타난다. 단순한 감기 증상이 독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감은 증상이 감기보다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몸에 열이 나면서 추위를 느끼게 된다. 고열과 발한(피부의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는 현상), 오한이 나며 근육통으로 시달린다.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재채기 · 코막힘 · 콧물 · 인후통 ·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종종 피로감과 우울증이 남는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독감 합병증은 기도의 세균 감염(급성 기관지염)과 폐 감염(폐렴)이다. 영아, 고령자, 만성 심장 질환자 혹은 폐 질환자,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같은 면역력 저하자, 당뇨병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전에 건강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차가운 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열을 내리게 하는 처치를 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진통제와 감기약은 근육통과 여러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호흡 곤란이 있거나 병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대개 6~7일 후에는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기침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고 피로감과 우울증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방 접종은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제외한 고위험군, 의료 기관에서 일하거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처럼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매년 예방 접종을 하면 접종자 중 약 2/3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 해마다 다른 종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특정 지역에서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상해 가을에 예방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씻는다.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는다. 손은 비누 등으로 20초 이상 씻는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린다.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한다.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로 가린다. 기침할 때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킨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 접종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권장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50세~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사람,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사람,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이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한다.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다.

유행성 눈병의 증상·예방법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눈병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병하며 일단 발병하면 증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보통 양쪽 눈에 발병하며 발병 후 2주간은 심하게 불편하다.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유행성 눈병이 전염되므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성 눈병의 주요 증상은 충혈·동통·눈물·눈부심·결막하 출혈이 나타나며 3~4주 지속된다. 발병 2주 정도까지는 전염력이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으며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이 처방된다.

눈병을 예방하려면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수건이나 컵 등 개인 소지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병이 유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한다. 특히 수영장 출입은 삼간다. 눈에 부종·충혈·이물감이 느껴지면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눈병 환자는 증상 완화와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살균제(치아염소산나트륨)를 희석한 소독액에 10분간 담갔다가 사용한다. 눈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며,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환자는 전염 기간(약 2주간)에는 놀이방·유치원·학교는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는다.
-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눈에 부종·충혈·이물감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안질환 환자는 증상 완화와 감염 예방을 위해 즉시 치료 받는다. 🌐

내비게이션 거치대가 위험하다!

사용 중 몇 번 떨어진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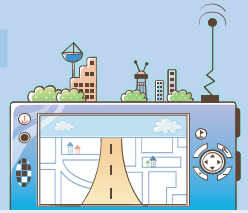
차량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동식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차량에 거치대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다. 운전 중 앞유리에 부착된 거치대가 떨어지면 내비게이션 액정이 망가지고 당황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내비게이션 거치대와 사용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했다.



상당 사례 분석

내비게이션 거치대와 관련한 상담은 2007년 31건, 2008년 42건, 2009년 10월 현재 40건 등 총 1백13건 접수됐다. 거치대의 흡착력이 약해져서 거치대가 떨어져 내비게이션 추락·액정 파손 등 거치대 탈락과 관련한 사례가 64건으로 내비게이션 거치대 상담의 57%를 차지했다. 특히 동절기(12월~2월)에 거치대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고무 소재로 만들어진 거치대의 흡착면이 딱딱해지거나 얼어서 공기가 흡입돼 진공력이 약해져 유리창에서 거치대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동식 내비게이션 사용 더 많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 1백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매립식이 20.6%, 이동식이 79.4%로 이동식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약 4배로 나타났다.

이동식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81명 중 85.2%가 유리흡착식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79.7%가 거치대 탈락 경험에 있었다. DMB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61.1%의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안전 운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판매 모델 수가 많은 상위 5개 업체 제품의 흡착식 휴대용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구입해 안전성을 테스트했다. 사용 중인 내비게이션 거치대는 구입 후 1년 이상 사용한 5개 제품과 자동차에 설치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 부착력 · 환경 시험

차내에 설치된 유리흡착식 거치대가 온도 변화에 의해 탈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한 상태에서 겨울철 날씨를 고려해 영하 15℃ 항온조에 6시간 동안 보관한 뒤 꺼내 즉시 98N(1kgf=9.8N)의 힘을 가했다. 시험한 결과 신제품 5개 전 제품과 1년 사용한 제품은 이상이 없었다. 반면 2년 사용한 거치대 4개는 전부 탈락해 유리흡착식 거치대는 장기간 사용하면 저온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 햇볕 아래 주차돼 있을 때를 고려한 시험에서는 5개 신제품 전부와 1년 사용한 제품은 탈락하지 않았다. 2년 사용한 거치대 4개 중 2개 제품은 탈락했다.

◆ 장기 부착 시험

자동차 앞 유리판에 유리흡착식 거치대를 부착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부착 부품에 하중을 가한 상태로 유지한 뒤 1주일 간격으로 부착력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5개 신제품 중 1개 제품이 26일 경과 후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탈락했다. 그 외 제품은 6주간 장기 부착시험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 실사용 시험

자동차에 설치된 유리흡착식 거치대는 차량이 과속 방지턱 및 도로의 요철 등을 주행할 때 충격을 받는다. 외부 기온에 노출되므로 자동차에 설치된 고무 소재로 만들어진 흡착판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실제 사용할 때 충격과 환경 변화에도 거치대가 탈락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 5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앞유리판에 유리흡착식 거치대를 장착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뒤 평소와 같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거치대가 탈락하는지 실사용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2년 사용한 1개 제품은 1주일 후 98N의 힘으로 당겼을 때 떨어졌으며, 그 외 1년 정도 사용한 4개 제품은 6주간 매주 실시하는 부착력 시험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내비게이션 거치대는 소모품이므로 사용 중 2~3회 떨어진 적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 내비게이션의 밑면이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닿도록 거치대의 설치 위치를 잡아 거치대가 탈락해도 내비게이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유리에 습기나 먼지가 있으면 공기가 흡착판으로 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부착 전에 유리 표면을 깨끗이 닦는다.
- 자동차 유리에 부착할 때에는 흡착판을 유리에 밀착한 상태에서 장착 버튼을 눌러 단단하게 설치한다.
- 차량 출발 전에 손으로 거치대를 가볍게 당겨서 부착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동절기에 거치대가 탈락하는 사고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동절기에 거치대를 부착할 때는 흡착판을 따뜻하게 한 뒤 부착하도록 한다.
- 흡착판이 하절기 고온에 방치되면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간 직사광 노출을 피한다. ☺



바람의 작업자



선반작업 안전

일러스트 | 김병철

먼 옛날부터
노동의 신을
섬기는 가문이
있었으니..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자
만이 작업 기계와 설비의
마음을 읽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이번 배움의
터는 이곳인가?



우끼!

두 분 다 선반작업
지원하셨죠?

네!!



네에~~.

둘 다 자격증
있으니까
알아서 안전하게
잘 해주세요.

저기, 안전 교육은
안 하시나요?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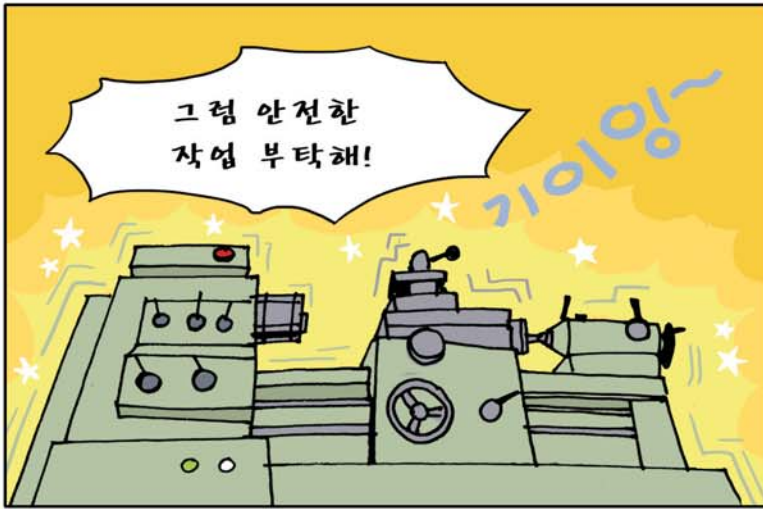
선반작업 한두 번 해?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뭐라구!?









최신 안전보건미디어 정보가 내 PC에 쏙~

안전보건미디어 위젯

지금 바로 **다운**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최신 미디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PC에 배달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속보와 공지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바이오리듬 조화는 보너스~ 지금 바로 안전보건미디어 위젯을 설치하세요!



안전보건미디어 위젯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공단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악성코드처럼 컴퓨터의 성능이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다음 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 지역별 날씨 및 안전메시지 표출
- ☞ 업종별 · 주제별 · 매체별 최신 미디어와 베스트 미디어 알림
- ☞ 공단 공지사항 및 중대재해 속보 알림
- ☞ 바이오리듬 조회 기능

* 궁금하신 점은 공단 교육미디어실(032-5100-685)로 문의하세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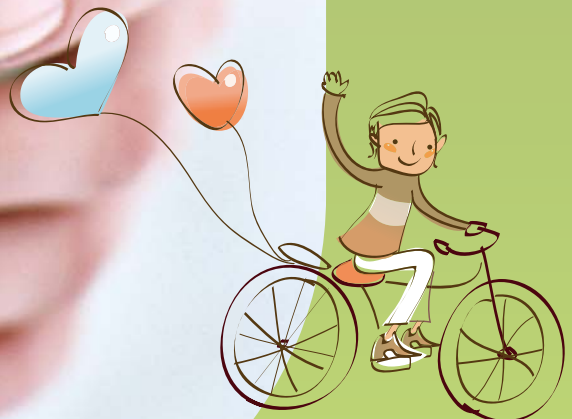
Happiness

가족의 웃음이 책임감을 만들고
동료의 웃음에 신뢰감을 쌓아갑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Theme Story - 시간

58	Theme Keyword
60	Theme Mind
62	Theme Touch
64	Theme Essay
66	Theme Plus
68	교과서 체험 여행
72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74	행복한 재테크
76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78	독자수필
80	문화산책



지금의 시간을 통해 미래의 나를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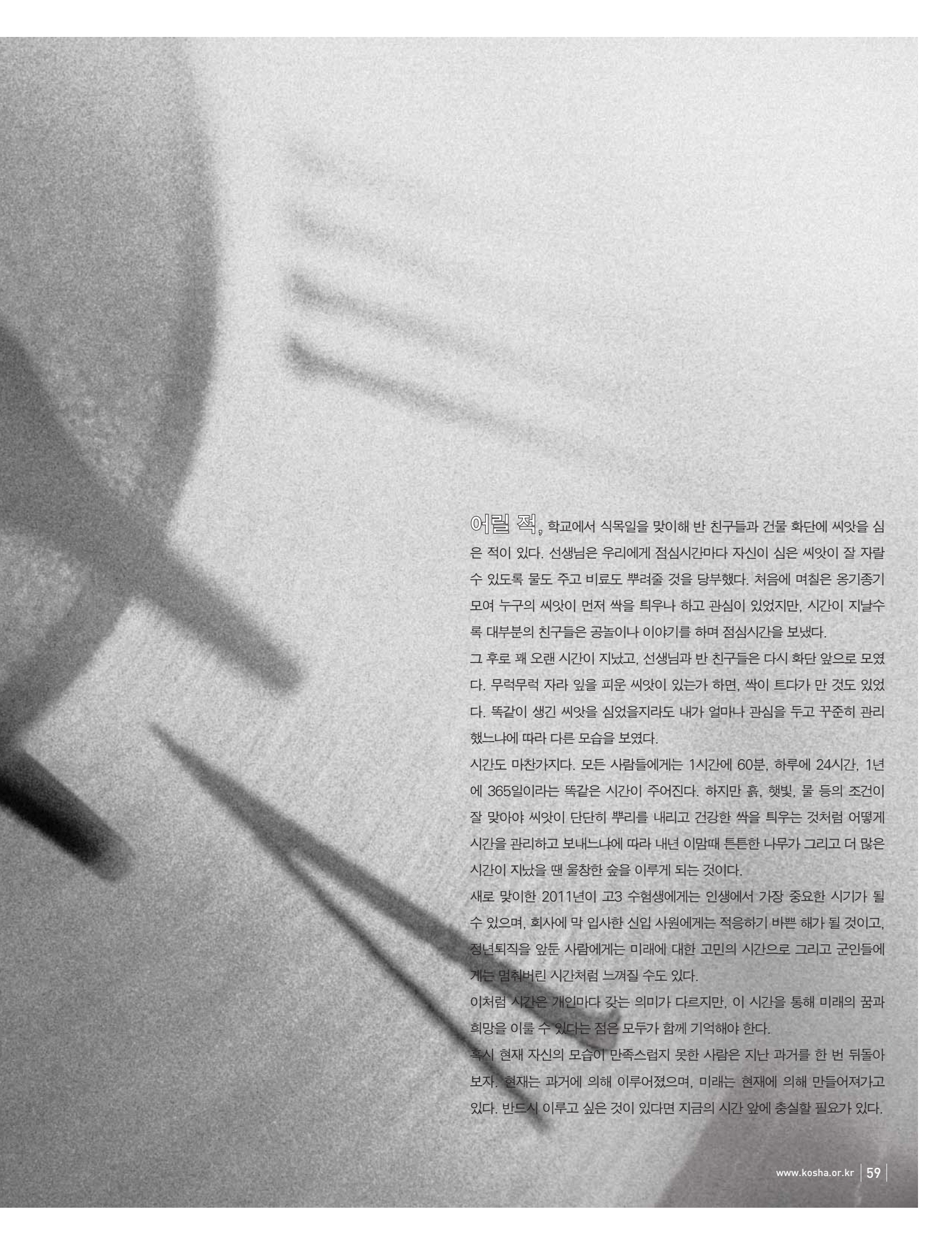
발명왕 에디슨은 세상에서 가장 못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아니던가. 시간의 가치는 지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래 또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데 있으므로 내 앞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글 | 김현지

THEME STORY

시간

時間



어릴 적, 학교에서 식목일을 맞이해 반 친구들과 건물 화단에 씨앗을 심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점심시간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뿌려줄 것을 당부했다. 처음에 며칠은 웅기종기 모여 누구의 씨앗이 먼저 싹을 틔우나 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놀이나 이야기를 하며 점심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다시 화단 앞으로 모였다. 무럭무럭 자라 잎을 피운 씨앗이 있는가 하면, 싹이 트다가 만 것도 있었다. 똑같이 생긴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리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시간도 마찬가지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1시간에 60분,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흙, 햇빛, 물 등의 조건이 잘 맞아야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이맘때 튼튼한 나무가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땐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새로 맞이한 2011년이 고3 수험생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 사원에게는 적응하기 바쁜 해가 될 것이고,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의 시간으로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멈춰버린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시간은 개인마다 갖는 의미가 다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

혹시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지난 과거를 한 번 뒤돌아 보자. 현재는 과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미래는 현재에 의해 만들어져가고 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의 시간 앞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인류와 함께한 시계의 역사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시계를 만들어 사용해 왔을까?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시계의 역사를 통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되돌아본다.

글 | 김현지

THEME STORY 시간
時間

해시계에서 손목시계까지

우리가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시계의 역사는 무려 6천여 년이나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바빌로니아의 해시계 그노몬(Gnomon)이 인류 최초의 시계다. 그노몬은 땅에 원과 눈금을 그리고 그 가운데 막대기를 꽂아 생기는 그림자로 시간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간 측정을 위해선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했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측정할 수 없었다.

기원전 2,000년에는 물시계 클렙시드라(Clepsydra)가 발명되었다. 이집트인이 만든 이 시계는 일종의 계측기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릇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릇 안쪽에 눈금을 그린 후, 물을 부으면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어 나가면서 남게 되는 수면의 높낮이로 시간을 측정했다.

4세기에는 모래시계가 등장했다. 우리나라 사우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것은 투명한 유리관으로 흘러내린 모래의 양으로 시각을 알아냈다. 비슷한 원리로 9세기에는 촛불, 램프, 향 등과 같이 연소 속도가 일정한 것을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시각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1364년

프랑스 앙리 드윅에 의해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계들과 달리 동력을 사용했다. 그 이후로 시계의 역사는 빠르게 발전했다. 16세기에는 휴대시계와 전자시계, 1728년에는 최초의 기계식 크로노미터가 발명되기 시작했다. 19세기부터는 오늘날 시계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해 전기태엽시계와 인류 최초의 손목시계인 카르띠에(Cartier)가 나왔다. 롤렉스(ROLEX)사에서는 360도로 회전하는 자동 추를 개발해 태엽을 감지 않아도 되는 기계식 시계 시대를 열었고, 일본의 세이코(SEIKO)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쿼츠 손목시계를 개발했다.

우리나라 시계의 역사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했을까? 현존하는 것은 없지만 '삼국사기'에 당시 물시계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해시계 파편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시각을 알리는 큰 종이 충목왕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434년에는 장영실이 세종의 명으로 자격루(自擊漏)를 만들었다. 당시 자격루는 놀라운 발명품이었다. 물시계의 일종인 자격루는 3단의 물통으로 이뤄졌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잣대가 물을 따라 올라가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미리 장전해둔 쇠구슬이 굴러 떨어지며 종을 울렸다. 이 소리 덕분에 사람이 지켜보지 않아도 시각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양부일구,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등의 해시계가 있었는데 특히 양부일구는 세종 때 조선에서 제작되기 시작해 일본에까지 기술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조선 인조 9년인 1631년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자명종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에 기계식 시계가 처음 전해졌다. 이 기계식 시계는 우리나라 시계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 현종 10년에 만들어진 혼천시계는 조선시대에 만든 천문시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이다. 물레바퀴의 원리를 동력으로 삼은 시계장치와 서양식 기계 시계인 자명종의 원리를 조화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시계 속에 가두어진 시간을 풀어라

이처럼 시계는 인류의 역사와 오랜 시간 함께해왔다.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인류가 시간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반증일터이다. 하지만 인간이 시간을 다스릴 수는 없는 일. 점점 더 정확해져 가는 시계와는 달리 우리는 오히려 시간에 쫓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상대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려는 압박감에 몸도 마음도 여유를 갖지 못하고 결국 시간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시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 일어나야 하고 언제 자야하는지, 점심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등 소소한 부분부터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시간을 잊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시계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 말이다. 🌍



1 바빌로니아의 해시계 2 조선시대의 양부일구 3 이집트의 물시계 4 영국의 자명종 5 조선시대의 자격루 6,7 패션시계 8 톱니바퀴시계 9 두경시계 10 스와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위한 방법

하루는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들은 어떻게 임원이 되었을까>라는 책을 보면, 임원이 되는데 중요한 세 가지의 비결로 '열정, 성실, 처음처럼'이라는 덕목이 제시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효과적인 '시간관리'의 방법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다.

정리 | 유성원 도움말 | 이경재 (주)한국성과향상센터 대표

효과적 시간관리를 위한 3가지 실천 지침

First 매일 1%의 시간으로 하루를 계획하라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경우와 계획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구나 경험해 보았겠지만, 전자의 경우 자신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지만, 후자는 사건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그 결과 하루의 성과도 큰 차이가 난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습관이 되지 않은 탓이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의 단 1%의 시간-하루를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니 약 10~15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을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특히, 너무 바빠 계획을 세울 틈조차 없다는 사람일수록 꼭 실행해보자. 1주일만 지나면 허둥지둥하는 일이 반으로 줄어들고, 3주 내에 야근

할 일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Second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하라 계획을 세울 때, 시간에 고정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시간이 정해진 방문 약속 등은 시간표상에 기록하고, 시간에 유동적인 사건은 To Do List와 같은 곳에 기록하는 등 나누어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 중 시간에 유동적인 사건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시간이 정해진 약속과 일들을 수행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모두 리스트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들은 A, A를 처리하고도 시간이 남을 경우 하면 좋은 일들은 B, 그 밖에 다른 날 해도 상관없는 일은 C, 이런



THEME STORY 시간 時間



식으로 말이다.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바쁘게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일들은 여전히 미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이 두서없이 진행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

Third 그때그때 실행을 체크하라 실행해나가면서 이론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체크하고, 다음의 업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활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할 때의 마음을 다지게 됨으로써 실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계획하고 그때그때 실행을 체크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한 약 30% 이상의 성과가 향상된다. 다음 날 다시 하루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전날의 계획 중 실행되지 않은 것을 점검하고, 그 일을 언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다. 오늘 또는 내일이나 다른 날 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분명히 처리해가면 생활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 시간관리를 위한 ‘메모습관’

하지만 아무리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 대부분 새해 세웠던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작심삼일은 망각의 동물인 인간에게 어찌면 숙명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이를 극복하는 소수의 사람은 탁월한 성취를 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작심삼일의 극복 방법은 삼일마다 작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심할 때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는 긴 과정을 줄이려면 최초 작심 당시의 절박함을 즉각 불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메모’ 해놓고 그때마다 읽으며 마음으로 새겨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3일마다 하기 시작하다가 머리와 마음에 각인되면 1주일, 1달 이렇게 작심해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쓰면 이루어진다.’ 정말 쓰면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면 미국 블라토닉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972년 예일대학 경영학석사과정 졸업생 200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84%의 학생은 목표가 아예 없었고, 13%의 학생은 목표는 있으나 기록하지 않았고, 오직 3%의 학생만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서 관리하고 있었다. 20년이 지난 1992년 다시 그들의 자산을 조사했을 때 목표가 있던 13%의 자산이 목표조차 없다고 답했던 84% 집단의 2배나 됐고,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서 관리했던 3%의 자산은 13%의 10배에 달했다.

2011년 새해, 의미 있는 출발을 원한다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고 싶기를 원한다면 꼭 도전할 일이 하나 있다.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습관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1달은 투자해야 한다. 1달의 노력이 평생의 행복을 만들 수도 있다. ☺

강이 가르쳐준 시간의 속도

강물은 한 방향으로 천천히 흘렀다. 넓고 깊어서 속을 비추어볼 수 없었다. 그 거대한 생명의 이동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았고, 그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한 찰 동안 가만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의 시간도 그렇게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THEME STORY 시간
時間

강을 따라 보낸 아주 긴 시간

서른이 되던 해, 나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지역에서 시작되는 메콩강을 따라 내려오는 보트 여행이었다.

태국 국경에서 라오스의 유명 관광도시인 루앙프라방으로 보트를 타고 가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첫 번째,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수심이 낮아지는 건기에는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방법, 배가 커서 스피드보트보다는 안전하지만 무려 1박2일간 이동을 해야 하는 슬로보트였다. 아침 9시에 출발해 작은 마을에 잠깐 경유,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또 하루 종일 배를 타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다. 비행기로 이동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릴 거리를 이틀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거였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시간 효율이 떨어지는 교통수단이었다.

당시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천천히 나아가는 배를 타고 고요하고 정적인 여행을 하며 충분히 쉬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나만의 사색을 즐길 참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다. 슬로보트를 타러 국경마을로 이동하고, 출입국 수속을 밟기 위해 절차를 밟는 과정은 세계 각지의 배낭여행객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이었다. 제대로 안내하는 이도 없이 마냥

기다리다 허술한 트럭 뒤편에 실려 나루터에 도착했지만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함께 이동한 다른 여행객들에게 물어봐도 언제 출발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타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마냥 기다리는 데만 한나절은 지났다. 다른 이들도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는 듯 저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낮잠을 자거나 했다. 나로선 한국인도 없고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끝에 탄 슬로보트는 더더욱 가관이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비교적 큰 배에 150여 명이 타야 했다. 좌석은 나무로 만든 벤치 같은 의자였는데 직각으로 된 허술한 등받이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폭이 고작 20cm에 불과해 허리를 곧추세워야 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 배가 움직일 때마다 의자가 넘어질까 봐 불안했다. 현지인들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나는 배 후미 바닥에 앉아야 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앉은 vip좌석은 좀 괜찮은 셈이었지만, 이미 내 속은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이런 환경에서 휴식이 뭐고 사색이 뭐란 말인가.

새벽의 메콩강, 내게 말을 걸다

배는 그 이름처럼 매우 천천히 나아갔다. 엔진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추진 장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강이 흐르는 속도에 맞추어 함께 흐르는 모양새였다. 처음엔 바깥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빛깔과 모양으로 반짝였고 강가에선 손을 흔드는 현지인, 풀을 뜯고 있는 흰 소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 시간 정도가 한계였다.

나는 자신이 이토록 시간을 보내는데 서툰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 책도 읽고 가져간 게임기로 게임도 했다. 사람들 얼굴도 구경하고, 잠도 지겹게 잤다. 그러나 여전히 배는 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고 바깥 풍경은 여전했다. 다른 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이던 사람들이 점점 감당 못할 시간의 공격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늘어졌다.

이윽고 해질녘 임시 경유지인 팍벙에 도착할 즈음에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숙소에 들어가 널브러졌다. 6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스피드보트를 선택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슬며시 든 것도 사실이었다.

내일은 또 뭘 하며 시간을 건디나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없어 종종거리던 내가 막상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자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을 하는 것도 한 시간 정도면 끝이었고,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독서도 두세 시간 지나니 지겨워졌다. 불편한 자리와 쾌적하지 않은 환경 탓으로 돌려보았지만 그것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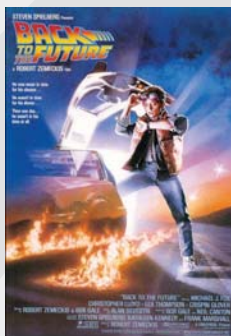
낮잠을 많이 잔 탓일까, 새벽녘 저절로 눈이 뜨였다. 강가 산책

이나 나설 요량으로 밖으로 나왔다. 반쯤 감긴 눈으로 터벅터벅 걸어 'Riverside'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혼자 터벅터벅 걸었다. 새벽의 메콩강은 자욱한 물안개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저 멀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작고 아름답게 들려왔고, 나루터 어귀에서는 부지런한 어부가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폭이 좁은 나룻배를 저어가는 소년의 어두운 실루엣이 호젓한 강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반쯤 졸고 있던 머리가 문득 맑아졌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나에게 무슨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강가에서 얼마나 서 있었을까. 안개가 걷히고 태양도 고개를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바삐 움직였다. 강은 언제 내게 말을 걸었느냐는 듯이 여전히 제 속도로 흘렀다. 문득 나는 시간의 속도가 왜 그렇게 달랐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가 아주 오래 강을 응시하고서 있었던 것처럼 흐르는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매 순간 나를 관통해 지나가는 엄청난 시간의 속도를 실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마치 인생의 무게 같은 커다란 가방을 짊어지고 다시 배를 타는데, 나는 좀 더 시간을 마주 볼 자신이 생긴 것 같았다. 거대한 강이 내게 가르쳐준 작은 비밀 덕분이었다. 이윽고, 슬로보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도, 강처럼 그렇게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





백 투더 퓨처 1985

시간과 관련된 영화를 찾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백 투더 퓨처다. 시간 여행의 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로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기상천외한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타임머신'이라는 가상의 기계를 훌륭하게 재현하며 당시 큰 인기를 누렸다. 시리즈 3편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잭 1999

임신 10주 만에 태어난 잭. 10년이 지나 잭은 10살이 되지만 외모는 마흔 살 중년의 모습이다. 잭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지만 뛰어난 위트와 장기로 금방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기를 독차지한다. 하지만 외모가 40대로 보이는 만큼 잭의 일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영화는 어른이면서 아이인 잭을 통해 인간의 성장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미래, 시간을 넘나들다

시간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공을 초월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모아보았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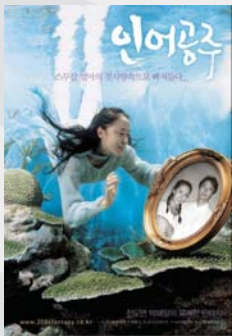
만약 1999년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실패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장동건 주연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는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영화는 100년 뒤 서울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방대한 스케일과 뛰어난 액션 장면의 연출이 인상적이다.



나비효과 2004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라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카오스 이론으로 발전했다. 영화 <나비효과>는 이 이론을 영화에 접목한 작품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은 한 인간의 기억이고, 이 기억에 대한 선택 또는 재구성이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설정이다.





인어공주 2004

전도연의 1인 2역이 돋보였던 <인어공주>는 엄마와 딸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하게 다뤘다. 극 중의 전도연은 우연히 과거의 엄마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화는 시공간을 뛰어넘게 되면서 과거의 추억은 현재의 힘겨운 시간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도의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극적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클릭 2006

아담 샌들러 주연의 <클릭>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을 소재로 한 영화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생활의 일부를 '빨리 감기' '뒤로 감기' '정지' 등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담 샌들러는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지루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2006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초초이 아스타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1983년에 이미 영화로 제작된 적 있지만 2006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해 개봉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리프의 능력을 우연히 가지게 된 주인공. 그 능력으로 인해 주인공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곤란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 반전 부분은 영화의 재미를 두 배로 더해준다.



데자뷰 2007

영화 <데자뷰>는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과거 혹은 미래가 던져주는 경고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주인공 칼린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과거로 돌아가 테러 폭파 사건을 해결하고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4일 6시간 전으로 돌아간다. 시간여행의 논리를 비틀고 또 비틀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은 흥미로운 두 뇌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시간 여행자의 아내 2009

주인공은 '시간 여행 유전자'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이 여섯 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주인공과 여러 번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와의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시간 여행이라는 것에 비유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논리적으로 분리해 그 가치를 보여준다.



페르시아의 왕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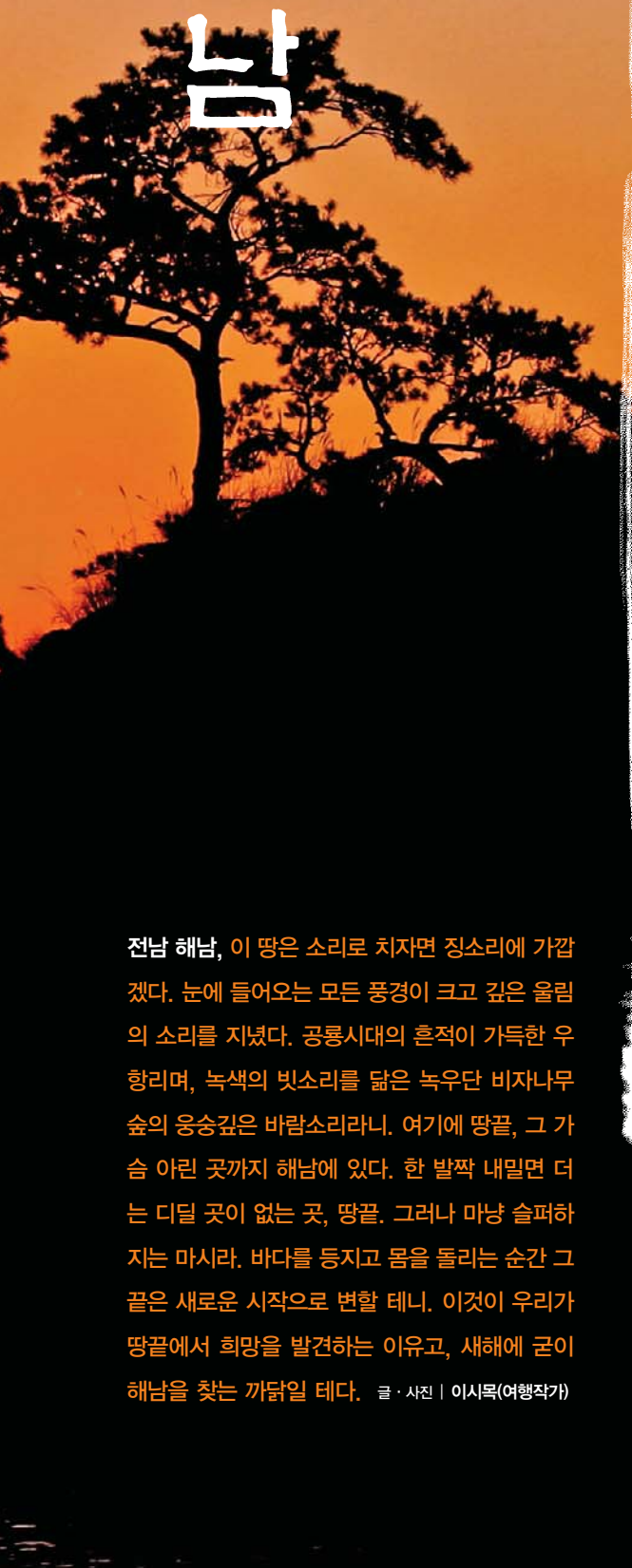
<페르시아의 왕자 : 시간의 모래>는 인기 비디오 게임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 다스탄은 적군이 무기를 조달한다는 정보를 듣고 공격하던 중 단검을 발견한다. 이 단검은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래를 통해 시간을 거꾸로 흐른다는 소재의 재미도 있지만 뛰어난 특수효과로 인해 영화의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땅끝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희망을 전송합니다

전남 해남



전남 해남, 이 땅은 소리로 치자면 징소리에 가깝겠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크고 깊은 울림의 소리를 지녔다. 공룡시대의 흔적이 가득한 우항리며, 녹색의 빗소리를 닮은 녹우단 비자나무숲의 웅성깊은 바람소리라니. 여기에 땅끝, 그 가슴 아린 곳까지 해남에 있다. 한 발짝 내밀면 더는 디딜 곳이 없는 곳, 땅끝. 그러나 마냥 슬퍼하지는 마시라. 바다를 등지고 몸을 돌리는 순간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할 테니. 이것이 우리가 땅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고, 새해에 굳이 해남을 찾는 까닭일 테다. 글·사진 | 이시목(여행작가)

8천만 년 전의 시간이 잠든 곳

▶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유지 - 녹우단 - 대흥사

아이들에게 땅의 끝은 어쩌면 그저 바다를 보는 환희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해남은 공룡을 볼 수 있어 행복한 곳일 테고. 그래서 일단은 바닷가 공룡부터 만나러 간다. 목적지는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유지다. 거대한 공룡이 거닐었던 흔적이 바닷가 바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곳은 특히, 세계 최초로 익룡과 공룡, 물갈퀴가 달린 새의 발자국 화석이 한 곳에서 발견된 지역이다. 갈대가 무성한 호숫가에 지구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공룡발자국화석은 바로 이 퇴적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 8천만 년 전의 시간이 현재 속에 선명하게 박혀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새해 선물이 될 테다. 공룡화석자연사유지 위쪽 언덕에는 우항리 공룡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공룡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말라위사우루스가 박물관 벽을 뚫고 나와 반기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많은 종류의 공룡을 전시해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공룡인 에드몬토사우루스를 공격하는 장면은 박물관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 머리 위 천장에는 익룡인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 까지 커다란 날개를 펼쳐 날고 있어 아이들을 긴장시킨다.

우항리가 스펙터클한 공룡의 낙원이라면, 녹우단과 대흥사는 마음에 바람이 담기는 곳이다. 집 뒤 비자나무숲이 바람에 흔들리면 비가 내리는 소리를 낸다고 하여 녹우단이라 불리는 해남 윤씨 종택은, 청신한 기운을 물씬 풍기는 비자나무숲과 함께 고산 윤선도가 기거하던 녹우당(사랑채)이 아름다운 곳이다. 곁에는 고산의 육필원고와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등이 있는 유물전시관도 자리해 볼거리를 더한다.

녹우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대흥사는 추사 김정희가 썼다는 현판들과 함께 천불전의 꽃문살과 꽃담이 눈길을 끄는 곳이다.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원숭이 문양을 새겨 넣은 부도와 대웅보전 천장 상부에 있는 서수(상서로운 징조로 나타나는 짐승)를 탄 동자들이 비천(飛天)하는 목조각도 볼 수 있으리라.

교과서 Tip

공룡화석자연사유지 초등 4학년 1학기 <과학> '공룡발자국' / 초등 4학년 2학기 <사회> '화석을 찾아서'
 녹우단 초등 5학년 1학기 <사회> '여러 가지 모양의 집-한옥의 구조'
 대흥사 초등 4학년 2학기 <사회과탐구> '문화재현장 체험-절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1.공룡박물관 전시실 내부. 강화 유리 아래로 공룡발자국이 재현돼 있다. 2.공룡의 골격을 전시해 놓은 공룡박물관 내부 3.말라위사우루스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디자인의 공룡박물관 전경 4.해안도로에서 바라본 땅끝마을과 사자봉 땅끝전망대 5.미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6.땅끝전망대 전경



땅의 끝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희망

▶ 땅끝마을 -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 미항사



이튿날은 땅끝에서 시작한다. 땅끝마을은 뭔가를 정리하고 시작을 준비할 때 찾으먼 좋을 곳이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친 삶을 위로받거나 새로운 출발의 기쁨 떨림을 나누기 위해 땅끝을 찾는다. 무슨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국토의 끝이란 의미가 강한 곳. 그러니 이곳을 찾을 땐 상념 한 줍쯤 준비해 가도 좋을 테다. 땅끝에서는 누구라도 부산을 떨어야 한다. 1월 중순경 일출시각은 7시 30분경. 넉넉잡아 7시쯤에는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해야 일출을 볼 수 있다. 주차장에서 땅끝전망대가 있는 사자봉 정상까지는 걸어서 20여 분 거리. 제법 가파르나 밟지 않게 놓인 나무계단을 따라 오를 수 있어 발걸음은 그리 무겁지 않다.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인 사자봉 전망대는 육지의 끝을 품은 또 하나의 극점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물의 끝'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시작인 곳. 땅끝에서 맞는 일출은 그래서 더욱 각별하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땅끝마을 갈두리 선착장과 함께 맵시, 땅끝탑, 땅끝비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갈두리 선착장에서 땅끝탑까지는 해안 길로 편도 20여 분 거리.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맛이 좋다. 아이가 어려 땅끝전망대까지 걷기가 쉽지 않다면 전망대로 오르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땅끝을 벗어난 후에는 미항사로 길을 잡자. 달마의 얼굴처럼 우락부락한 달마산(489m)에 기대앉은 미항사는 절 자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울창한 동백숲길로도 유명한 신라시대 고찰이다. 1월엔 봄날처럼 꽃이 뚝뚝 떨어져 선홍빛 꽃길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화장기 없는 여인의 맨얼굴을 보는 듯 담백한 대웅전 하나 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땅끝마을에서 미항사로 가는 길에 있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찾아도 좋겠다. 8m짜리 고래상어를 비롯한 흑범고래 등이 바다세계의 신비를 보여준다. 🌊



먹을 곳 땅끝마을에 자리한 동산회관(061-532-3004)에서 매생이국과 석화비빔밥을, 해남읍내에 있는 용궁해물탕(061-535-2860)에서 푸짐한 해물탕을 맛볼 수 있다. 대흥사 앞에 있는 호남식당(061-534-5500)의 버섯요리도 맛있다.

잠잘 곳 대흥사 앞에 있는 유선장여관(061-534-2959)은 영화 <서편제>를 촬영했던 곳으로, 시설은 낡았지만 산중에 위치해 운치가 있다. 송호리에 땅끝오토캠핑장(061-534-0830)이 조성되어 있고, 계곡면 가학리에 자연휴양림(061-535-4812)이 있다. 송지면 소죽리에 있는 바닷가모텔(061-535-5757)처럼 전망이 좋은 모텔도 더러 있다.

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를 빠져나온 다음, 영산강하구 방조제를 지나자마자 우회전. 금호 방조제를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산이반도를 거쳐 해남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항리 이정표는 가는 길에 나온다.

교과서 Tip

땅끝마을 초등 3학년 1학기 <국어쓰기> '바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초등 4학년 2학기 <사회과탐구> '여러 가지 박물관'

미항사 초등 4학년 2학기 <사회과탐구> '문화재현장 체험-절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부모님께 드리는 학습여행 팁

우항리를 갈 때에는 카메라와 공룡 그림이 그려진 책, 노트 등을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그려진 공룡은 대부분 피부로 둘러싸인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에는 뼈 형태의 공룡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책 여백에 공룡의 골격구조를 직접 그려 넣어 보면 공룡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리고 전시된 공룡 화석 중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을 구분해 보는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건 대부분 육식공룡이고, 발톱이 뭉툭하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건 초식공룡입니다. 이 차이점을 노트에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사랑의 끈’을 통해 내일을 꿈꾸다

이영숙 <누구나 가슴속엔 꿈이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파독 광부들과 파독 간호사들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발전의 종잣돈을 마련한 이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낯선 땅 독일로 향했다. 이방인으로서 객지에서서의 고달픈 삶을 달래준 것은 사랑이었다.

낯선 나라에서 꽃피운 사랑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외 슈반하임 사브르커슈트라세는 한적한 주택가였다. 뽕죽 지붕을 한 3층짜리 집 벨을 눌렀다. 문을 열어준 것은 60대 초반의 한국여인이었다. 1970년 4월 독일로 건너와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독일인 남편을 만난 황춘자 씨였다. 황씨는 독일 생활 2년 만에 컴퓨터 엔지니어인 현 남편 라이너 아른트와 결혼, 33년 동안 독일주부로 살고 있다. 새 단장을 한다며 온통 흙을 해집어 놓은 정원 한쪽의 야외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남편 아른트는 인사를 건넨 뒤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다. 황씨는 독일 주부로 산 지난 33년간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1972년 9월 결혼한 황씨는 지난 1994년 시어머니가 88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22년간 시집살이를 했다. 시어머니는 아래층을, 황씨 부부는 위층을 썼다. 돌아가시기 전 6년 동안은 관절염으로 거동하지 못했던 탓에 먹고, 씻기고, 입히는 시어머니 수발을 황씨 부부가 해야 했다. 심지어는 대소변까지 직접 받아내기도 했다. 간호사 생활(요한 볼프강 괴테 의과대학 부속병원)하랴, 시어머니 봉양하랴, 남편과 아들딸 챙기랴 1인 4역의 고된 시집살이였다.

“남편은 정말 꼼찍한 효자였습니다. 병원이나 양로원 시설에 맡기는 것을 입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꼭 참고 병 수발을 포함한 시집살이를 암전히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워낙 천성이 착한 분이 었기 때문이었다. 동양 며느리와 살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어로 된 중국 요리책을 사다가 며느리 먹으라고 탕수육 비슷한 것을 가끔 해 주셨어요. 독일어로 된 한국 요리책을 구할 수 없어 우리 음식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걸 늘 마음 아파했지요.”

현재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남편 아른트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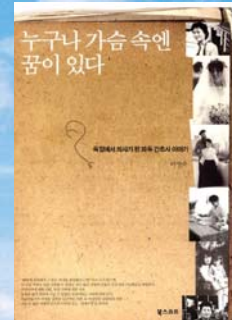
“처음 청혼을 받은 뒤 결혼 승낙을 받으려 군산의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친정아버지로부터 첫눈에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속한 번 썩인 적이 없습니다.”

황씨 부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는 딸 스잔네와 아버지처럼 컴퓨터 엔지니어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미샤엘을 두었다. 딸 부부는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러온 손녀 셀리나가 들락날락하면서 줄곧 황씨 곁을 맴돌고 있다. 셀리나는 김치와 멸치볶음, 김 등 한국음식도 좋아하고, 장구도 제법 친다고 했다.

“독일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함께 우리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된장국을 끓여서 오순

스무 살 때 독일에 온 나는 늘 오랜 외국 생활에서 오는 내면의 갈등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독일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떤 한국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독일과 한국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 279쪽 중에서

이제 나는 조금씩 내 생활을 변화시켜서 오늘을 보람 있게 살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기쁜 마음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아직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 320쪽 중에서



도순 같이 먹으며 늙어가는 정겨움 같은 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많이 맞춰 주는 탓에 무탈하게 잘 살지요.”

황씨는 지난 1998년 8월 간호사 생활을 그만둔 뒤 서예와 컴퓨터 공부 등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씨는 지붕 위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가리키며 “요즘은 위성방송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매일 본다”며 “정말 살 맛 난다”고 했다.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펼치다

파독간부와 파독간호사간 사랑은 물론 황씨처럼 독일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운 이들도 적지 않았다.

‘누구나 가슴속엔 꿈이 있다(북스코프, 이영숙)’는 독일인과의 가슴 저린 사랑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이영숙 씨는 1953년 전남 해남군에서 일곱 자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1971년 해외개발공사에서 간호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72년 독일로 떠난 그녀는 1977년까지 에센 가톨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 외중에서도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튀빙겐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1981년 뇌종양을 앓고 있던 수학과 박사과정 중인 유르젠과 결혼했다. 1985년 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남편 유르젠은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으나 병이 재발하여 198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아들 안을 키우며 뮌헨의 개인병원과 튀빙겐 대학병원에서 일했다. 1993년에 튀빙겐에서 일반 가정의학과와 자연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병원을 개원했다. 생활이 안정되어가던 2005년 뇌종양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 운영했으나, 2007년 척추암이 발견되어 병원을 닫았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책은 충분히 감동적이고 눈물을 쏟게 할 만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요란스럽게 자기 사랑을 할 법한 대목에서도 그저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이어간다. 곡절 많은 그 삶의 기록을 어쩌면 저렇게 감정의 기록이 없이 지면 위에 쏟아 냈을까 신기할 정도다. 그렇지만 책은 읽는 사람의 가슴을 자주 먹먹하게 만들곤 한다.

저자는 30여 년간 독일에서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이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랑의 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대답한다. 그 ‘사랑의 끈’들이 저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낯선 땅에서도 주눅 들지 않게 해 준 것이다. 🌈

2011 새해를 맞아 본인의 재테크 계획을 세워보기로 마음먹은 A씨, 최근 기사에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해지지만 하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저축하겠다는 작년 1월의 계획을 잘 지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만 들 뿐이다. A씨는 새해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2011 새해 재테크 전략 재테크 기본부터 점검하자

많은 사람이 매년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한 계획, 가족을 위한 계획, 자기계발을 위한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보게 된다. 최근에는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 한 해의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기도 한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 계획으로만 끝나는 일이 많아, 후회만 반복하게 되는 자신을 탓하며 아쉬워하곤 한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수정해 재테크 전략을 매년 다르게 세워보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우왕좌왕 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본인의 재테크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고 실행에 옮겨 볼 마음이 생겼다면 재테크를 위한 기본전략을 점검해 볼 때이다.

내게 맞는 투자방법을 찾자



하고 싶은 재테크와 할 수 있는 재테크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어디에다가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부동산을 꼽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금융상품이 단연 압도적이다. 평소 공격적인 투자성향이 있는 사람이 안전성 위주의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못할 일이지만, 자금 성격상 혹은 개인 성격상 전혀 주식투자가 맞지 않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한 후 노심초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재테크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를 벌



었는지를 통해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지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고수익 보장에 안전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투자하는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쉽게 그리고 많은 이익을 얻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기 마련이다. 특히 기대하는 수익이 클수록 '어디 어디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 '특별히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인데 무슨 무슨 주식을 사면 틀림없다' 등 장밋빛 정보에 속기하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게 훌륭한 고급정보가 어떻게 내 귀에까지 들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위험에 고수익 투자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수익성 양쪽을 모두 고려한 분산투자가 보다 최선의 방법이다.

경제 흐름을 읽어라 ✓

주가가 내려가는 때에는 제아무리 주식투자의 고수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때에는 손실보다는 이익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는 때에는 장기상품보다는 단기상품이, 변동금리 대출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그에 따라 재테크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려면 투자자에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게 유리하게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읽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곧 재테크의 성과도 커지기 마련이다.

재테크를 위한 시간투자에 인색하지 마라 ✓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재테크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불과 몇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곳저곳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면서 그보다 몇 백배 혹은 몇 천배 더 비싼 투자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과연 수고와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속한 투자결정도 중요하지만 경솔한 결정은 오히려 낭패만 부를 뿐이다. 사전에 정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 후 필요한 적기에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테크 요령이다.

모으는 재테크 못지않게 쓰는 재테크도 중요하다 ✓

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 중 절반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자. 이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하는 100만원에 대해 수익률 1%를 높이기 쉬울까 아니면 생활비를 절약해 1만원을 모으기가 더 쉬울까? 어느 쪽이든 1%의 초과수익을 올리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쉽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흔히 재테크라 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잘 굴리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모으는 방법에도 효과적인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쓰는 방법에도 효율적인 소비재테크를 겸비할 때 내 수익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재테크의 결과는 세금이 좌우한다 ✓

재테크의 성과는 수익률이 결정하지만 최종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세금이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 될 뿐이다. 또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별도의 투자위험 없이도 실질수익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비과세나 세금우대와 같은 절세상품은 항상 최우선으로, 또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에도 표면 이율보다는 세후수익률로 판단하도록 하자.

신종 금융상품들에 주목하자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신종 금융상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예금상품이나 금융공학을 이용해 파생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을 혼합한 형태의 상품들이 속속 시판되고 있다. 또한, 판매와 운용을 분리해 판매는 은행에서 하고 운용은 투신운용사에서 담당하는 수익증권이나 해외채권투자상품 등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신종 금융상품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눈여겨 살펴본다면 오히려 기존상품보다도 자신의 성향에도 맞고 초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근골격계 위험이 있는 작업자를 위한 스트레칭

어느 날 자동차가 말뚝을 부러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러 가게 되었다. 요즘은 정비소가 많이 자동화되어서 중량물 작업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차량 앞부분을 열고 들여다보는 작업은 개선이 힘들어 보였다. 차가 크면 클수록 기술자의 허리가 구부러지는 각도는 커졌고, 손은 더욱 멀리 뻗어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의 직업병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망설이다가 작업을 하는 기술자에게 다가가 허리가 아프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상하게 쳐다보며 가끔 빠근하다고 대답하는 기술자를 위해 스트레칭 자세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 기술자는 물론 카센터 직원 모두 처음에는 황당해하다가 운동처방상담까지 하고 나니 나중에는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가면 안 되겠느냐는 농담까지 던지신다. 아무래도 단골 카센터가 생길 듯싶다.

작업개선이 이루어져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이 줄어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근피로가 높은 작업 후에는 원활한 혈액순환과 피로를 풀어 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다.



1

기지개 켜기

Action 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2 두 손을 깎지껴서 머리 위에서 위쪽을 향해 쭉 펴고 10초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천천히 반복 실시한다.



2

허리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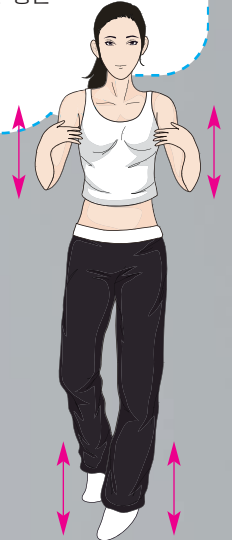
Action 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2**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가슴을 최대한 넓게 펴고 10초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몸통이 너무 뒤로 넘어가서 허리에 부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가볍게 몸 털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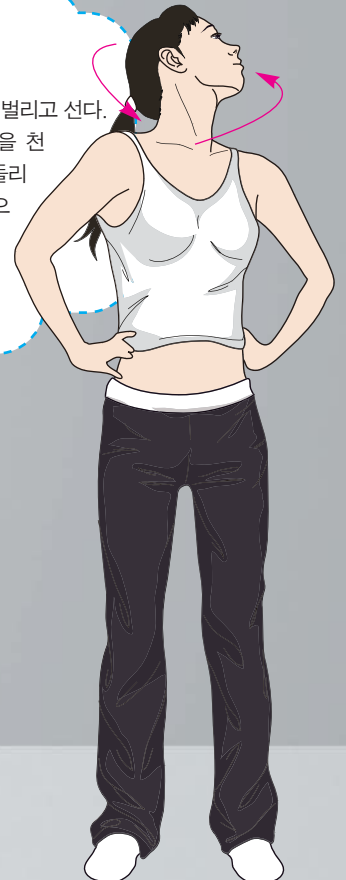
Action 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2 가볍게 뒤흔기기를 하면서 양손을 털어 준다. **3**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같이 해주면 손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다.



6

목 돌려주기

Action 1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2 머리의 무게를 느끼며 목을 천천히 돌려준다. **3** 빠르게 돌리면 목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천천히 돌려서 근육을 이완 시킨다.



4

허리 비틀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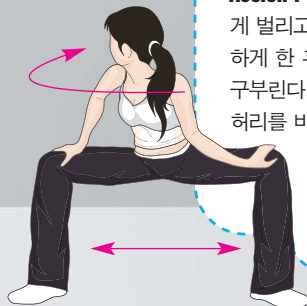
Action 1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린다. **2** 머리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펴고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 준다. **3** 자세가 완성되면 10초에서 30초간 유지 후, 반대쪽으로도 실시한다.



5

허리 비틀기 2

Action 1 다리를 어깨너비의 두 배만큼 넓게 벌리고 선다. **2** 양발을 바깥쪽으로 향해 한 후에 천천히 의자에 앉듯 무릎을 구부린다. **3** 무릎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허리를 비틀고 뒤를 돌아본다. **4** 자세가 완성되면 10초에서 30초간 유지 후, 반대쪽으로도 실시한다.



“여보, 우리 가족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나 확 풀어볼까?”

“노...래방? 뭐, 쩌.”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 나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 노래방 한 번 가본 적 없는 무드 없는 가장이었다. 아내와 아들딸은 종종 노래방에 가서 실컷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지만 그런 게 취미에 안 맞는 나는 번번이 그 자리에 불참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가족끼리의 노래방에 반강제로 끌려(?)가게 됐다. 특목고에 간다며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하느라 노래 한 곡 제대로 들을 겨를이 없을 걸로 생각했던 중학생 아들놈과 우리 같은 성인들은 흥내도 못 낼 댄스가수들 노래를 따라 부르는 딸내미가 40대의 부모와 함께 과연 노래방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 괜히 썰렁한 분위기로 세대 간의 갈등(?)만 확인하는 거 아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다. 용기 있게 처음 마이크를 잡은 아들 녀석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던 샌님 같은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아주 터프하게 노래 한 곡을 뽑았다. 그것도 나는 뭐라 말하는지 흥내조차 내지 못할 랩으로 최신 유행곡을 내리 3곡씩이나 멋들어지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신나는 노래에 맞춰 아내와 아이들은 서로 코러스도 넣어 주고 신명 나는 춤사위로 즉석 백댄서 역할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잘들 놀았다. 평소에 암기 과목이 힘들다고 하던 아이가 그 빠른 랩 가사를 한 구절도 안 틀리고 계속 부르는 것도 신기했다. 엄마 아빠의 구닥다리 옛 노랫가락에는 아이들이 분위기 맞춰 탬버린을 쳐주며 휴대폰 카메라를 터뜨려 주었고, 열렬히 박수까지 치면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훌쩍 2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것이고,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이며 또 어른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도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서로의 어깨동무를 통해 엄마 아빠보다 어느새 키가 훌쩍 커버린 두 아이들과 참으로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노래방을 나오면서 문득 새로운 사실을 떠올렸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신나게, 진지하게 분출하고 싶은 스트레스가 참 많구나! 항상 ‘공부, 공부’ 만 외치는 부모 말에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참으면서, 성적에 대한 가혹한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견뎌 내 준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다. 매일 여기저기 학원, 과외 다니랴, 한 달 내내 보충 수업하랴, 제대로 쉴 틈도 없었던 아이들을 생각해 다음부터는 노래 공부를 해서라도 함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공부든 노래든, 혹은 친구나 이성 문제는 마음이 열려야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법이다. 마음을 열고 활짝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풀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나마 애비 노릇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우리 가족 스트레스 해소법



감동을 전해 준 붕어빵 할아버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차로에는 자그만 붕어빵 리어카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겨울까지 할아버지 한 분께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시지 않다가 몇 달 전부터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니 다시 장사를 시작하신 모양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얼굴 찡그림 하나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음으로써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겹기 그지없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며칠 전 저녁 퇴근하는 길에 그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붕어빵 리어카에 힐끔 눈길을 주었다. 오늘은 장사가 꽤 안 된 모양이다. 낮에나 구웠을 법한 그래서 식을 대로 식어버린 붕어빵이 자판에 길게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버스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장사도 안 되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2천원어치 한 봉지를 사기로 했다. 오래간만에 맞는 손님이었던가? 할아버지는 싱긋 웃음을 지으면서 정성스레 붕어빵을 담아주셨다.

“금방 구워서 따끈따끈 할 거요.”

“아네요, 할아버지 식은 거 그냥 주세요. 집에서 데워먹으면 돼요.”

계속 식은 것으로 그냥 달라고 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한사코 방금 구운 따끈한 것을 담아주시려 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인심처럼 붕어빵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져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종이봉투에 담아두고 리어카 주위를 떠나려고 하는 찰나, 아뿔싸. 종이봉투의 밑바닥이 힘없이 투두둑 하더니 담겨 있던 붕어빵이 한 개도 빠짐없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당황해 하는 나를 보고 할아버지께서 급하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거 손님 미안합니다. 종이봉투에 풀칠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거 내가 다시 새로운 걸로 담아 드리리다.” 나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자 붕어빵을 산 것이기 때문에 사양을 하고, 다시 주실 거면 또 계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한사코 사양하시면서 다시 붕어빵을 새 봉투에 담아주시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밑바닥이 찢어질까 봐 불안하셨던지 봉투 2장에다 싸주시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날 연로하신 몸으로 장사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 붕어빵을 사곤 했다. 행여나 밑바닥이 뜰어질까 봐 손바닥으로 바치면서 말이다.

어쩌면 저리도 낙천적으로 삶을 사실 수 있는지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추운 겨울날 훈훈한 인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올겨울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라고 기원해본다. 🍀



Movie 심장이 뛰다

심장은 하나, 살려야 할 사람은 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연기파 배우 박해일과 김윤진이 영화 <심장이 뛰다>로 2011년 새해 극장가를 찾았다. 이번 영화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남녀가 각자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맞서는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심장을 둘러싸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하는 엄마와 뒤늦게 불효를 후회하고 죽어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들의 물러설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결이 박진감 넘치게 전개된다. 특히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야기에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부드럽지만 강한 카리스마 연기로 극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박해일, 김윤진 두 배우의 연기가 관람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장르 드라마 주연 박해일, 김윤진 개봉일 1월 6일



Musical 넌센세이션

유쾌하고 발랄한 수녀들의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던 뮤지컬 '넌센스'가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만큼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무대에 올랐다. 넌센스의 다섯 번째 시리즈인 <넌센세이션>은 수녀들에게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면 수녀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경건하고 금욕적일 것만 같았던 수녀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도 하고 카지노에 들어가 돈을 따기도 한다.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강한 수녀들 때문에 객석은 웃기 바쁘다. 또한, 배우들은 춤과 노래를 부르며 객석을 뛰어다니고 대화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한층 더 강력해진 스토리 외에도 무대연출과 의상 역시 이전 공연보다 더 화려해져 시각적인 효과도 높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뮤지컬계의 퀸이라 불리는 양희경, 홍지민 등이 출연해 관객들의 기대치가 높은 편이기도 하다.

기간 1월30일(일)까지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시간 화~금 8시/ 주말 3시, 7시 (월요일 쉼) 시간 02-744-4334/ 02-6925-5600



Book 언제나 미루는 당신이 지금 당장 행동하게 되는 50가지 방법

2011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해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거나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경우가 많다. 운동, 공부, 다이어트, 일찍 일어나기, 저축 등 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실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언제나 미루는 당신이 지금 당장 행동하게 되는 50가지 방법>은 '열심히 하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다짐에 호소하지 않는다. 의지만 다진다고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50가지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구조를 제대로 알고 나면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2011년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실천해보자.

저자 사사키 쇼고 출판사 이아소

안전 Energy 에너지

〈안전보건 에너지〉는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안전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업종별 중대재해사례부터
산업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정보까지
KOSH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봅시다.



82	안전보건 Focus
84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86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88	임업 중대재해사례
92	KOSHA CODE
94	지구촌 안전보건동향
96	안전인증현황
98	KOSHA Info & 독자퀴즈



2011년도 무재해 인증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재해운동을 펼치는 사업장은 모두 인간존중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지켜나가는 안전의 동반자입니다. 2011년부터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재해 인증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진 무재해 인증제도를 통해 무재해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의 합리적 조정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종·규모별로 목표달성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게 된다.

◎ 개선내용

-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 정의
 - 업종·규모별로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으로 정의
 -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 설정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을 규모에 관계없이 '목표기간'으로 일원화]

-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에 의한 소분류 업종(10개)과 규모별(5개, 공사규모)로 구분하여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 부여
- 건설업 이외의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에 의한 중분류 업종(62개)과 규모(18개, 근로자수) 기준으로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 설정

※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무재해 1배수 테이블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 목표기간 적용

◎ 행정사항

- 무재해 1배수 목표는 매년 산정하여 공시
- 신규 무재해 1배수 목표는 당해년도 무재해운동 신규참여 사업장 및 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고 그 다음 배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

무재해로 인정되는 재해의 범위 합리화

기존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무재해 인정이 안됐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재해로 인정하게 된다.

◎ 개선내용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는 무재해로 인정하는 내용 추가]

- ①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 ②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 ③ 회식 중의 사고
- ④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간소화

사업장 방문 목표달성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서류심사 등에 의한 민원해소를 해결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가 간소화 된다.

◎ 개선내용

[사업장 방문에 의한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를 서류심사로 개선]

- ① 목표기간 달성여부는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②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사업주 관리범위 내외 여부를 판단하여 무재해적용 여부 판정
- ③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 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현장 방문조사 실시

무재해운동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신규)

내년부터는 무재해운동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무재해 인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 이의 신청방법

·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공단 본부 무재해업무 담당부서에 “무재해 인증심사결과 이의

신청서” 제출(제출방법 : Fax 또는 우편)

- Fax : 032-512-6277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 처리기준

· 이의 신청을 받은 공단본부 무재해업무 담당부서는 접수 후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보

무재해운동 추진 우수사업장 표창제도 운영(신규)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은 실패하였으나 재해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무재해운동 추진 우수사업장 표창제도가 새롭게 운영된다.

◎ 신청대상

· 무재해운동을 개시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써 무재해운동 추진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해 무재해가 중단된 사업장

◎ 표창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역 지역본부/지도원의 무재해운동 업무 담당부서에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 표창신청서” 제출(제출방법 : Fax 또는 우편)

◎ 표창수여 기준

- ① 표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근 1년간의 사업장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중업종) 평균 재해율의 20%미만인 사업장
- ② 공단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사항을 모두 시정조치 완료한 사업장





안전난간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벽돌벤딩용 테이프가 끊어지며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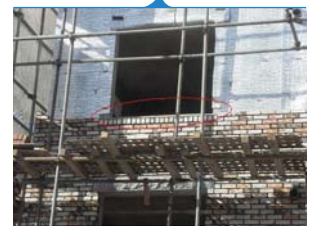
고소작업을 할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안전난간도 없이 작업발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재해가 일어나게 된다.



재해자가 작업했던 발판 상태



인양용으로 사용했던
벽돌벤딩용 P.P 테이프



재해자가 작업하려고 했던 창문

벽돌 묶은 테이프가 끊어지며 추락

“선배님, 보통 이 정도 높이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불안한데요.”

“자네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안전모도 쓰지 않았어. 혹시 자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잡아주지. 하하.”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지상 4층, 연면적 455㎡)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조적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작업은 보조공인 김씨가 건물 내부 방에 운반해 놓은 벽돌을 두 사람에게 건네주면 황씨와 박씨는 3층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벽돌을 쌓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자,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투둑’

“어, 어어, 으악~”

오후 3시경, 김씨가 건넨 벽돌을 황씨와 박씨가 들어 이동하는

순간 황씨가 잡고 있던 벽돌을 묶고 있던 테이프의 겹침 부위가 떨어졌다. 그 순간 황씨는 몸의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다.

안전난간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

재해당시 끊어진 벽돌벤딩용 P.P 테이프는 벽돌 5장을 묶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폭은 1.5cm, 겹침길이는 약 4~5cm였다. 황씨가 있었던 작업발판은 각목 위에 철재 발판을 2~3장 겹쳐 놓은 상태로 지지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더구나 발판 옆쪽에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황씨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기분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 황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 조적공사 : 담장을 쌓듯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발판을 고정하고,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생명 지키는 안전판은 어디에?

칩에 팔이 감기며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선반 작업을 할 때에는 부품이나 공작물에 옷이나 장갑 또는 팔이 걸릴 위험이 있다.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안전모와 보안경 등의 개인 보호구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례처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재해발생 작업상황 재연
(개인보호구 미착용)



주축대 부위
(칩비산 방지조치 없음)



절삭부위 상세 사진
(칩브레이커 없음)

선반 작업 중 의식 잃고 쓰러져

“정씨 자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나.”

“네, 사장님. 머리가 좀 아파서요.”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아닙니다. 작업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래? 그럼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수고하게.”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정씨는 선반 기계에 봉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가 아팠던 정씨는 작업 도중 수차례 쉬어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던 중 사장이 시계를 보다가 선반 옆에 쓰러져 있는 정씨를 목격했다.

“이봐, 정씨 왜 그래? 괜찮아?”

사장이 수차례 흔들었지만 정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급하게 119를 불러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칩이 튀는 것 막는 방호조치 없이 작업

재해 당시 정씨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선반은 계속 동작 중이었다.

쓰러진 정씨는 좌측 귀 상부가 찢어지고, 작업복이 왼팔의 손목 위부터 어깨 밑까지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 당시 정씨가 진행했던 작업은 황삭으로 칩이 길게 늘어질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현장에는 선반의 부품이나 공작물에 옷이나 팔이 걸릴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칩브레이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에 미뤄볼 때 선반의 가공물 가까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정씨는 절삭 후 발생하는 칩에 왼팔이 걸린 후 순간 끌려 들어가면서 왼쪽 머리가 선반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칩이 끊어지며 선반 앞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 **황삭** : 절삭면을 거칠게 깎는 1차 가공으로 도면상의 치수대로 깎아서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

▶ **칩브레이커** : 절삭칼에 흠을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칩이 짧게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함.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칩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

가공물에서 발생하는 칩(절삭편)에 근로자의 신체가 걸려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칩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고속 회전체 주위에서 넘어질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칩과 오일로 인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불감증에 베어진 안전

벌목 작업 중 엔진톱에 접촉하여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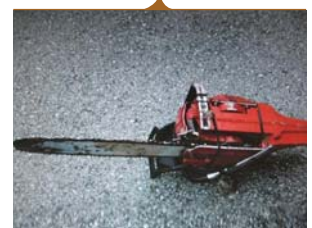
신체에 닿을 경우 매우 위험한 엔진톱으로 작업할 때에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체인 브레이크가 없는 엔진톱을 사용하다 죽음을 맞게 된 이번 사례는 안전불감증의 극단을 보여준다.



재해발생 장소



재해발생장소의 경사



피재자가 사용한 체인톱

미끄러지며 엔진톱날에 왼쪽 다리 베어

‘드르르르’

“어, 아~악. 이, 이봐 나 좀 살려줘~”

지난해 9월 전북 소재 임야의 잡목 간벌 작업장에서 근로자 3명이 오전 7시경부터 벌목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인근에서 각각 엔진톱을 사용해 나무 베기를 하던 중 김씨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동료 작업자인 홍씨와 박씨가 달려왔다.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어, 이런.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자네는 빨리 119에 신고해. 나는 일단 지혈부터 해야겠어.”

다급한 소리에 홍씨와 박씨가 뛰어와 보니 김씨가 허벅지 부위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 엔진톱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작동 중이었다. 박씨가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지역까지 뛰어 내려가 119구조대에 신고하는 동안 홍씨는 지혈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출혈 과다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체인 브레이크 없는 엔진톱 사용

당시 김씨가 일했던 장소는 경사도가 35~40도 정도로 매우 비탈진 지역이었으며, 최근 내린 비로 지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작업 내용은 나무 전체를 베지 않고 옆 가지를 베어내는 작업이었다. 김씨의 왼쪽다리 허벅지 부위가 부상당한 것으로 볼 때 두 번째 나뭇가지가 베어진 순간 몸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톱날이 김씨의 왼쪽 다리에 접촉된 것으로 추정된다.

벌목작업장에서 이동하거나 베기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톱날을 멈추게 하는 체인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나 당시 체인 브레이크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벌목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무릎 보호대, 작업복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 김씨는 안전화만 착용한 채 작업했다.

결국 김씨는 경사지고 미끄러운 장소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 작동 중인 엔진톱날에 신체가 접촉하여 다리에 상처를 입고 출혈 과다로 사망하고 만 것이다. ☹️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인 브레이크가 부착된 엔진톱을 사용해야 한다.

벌목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화, 전용의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자세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엔진톱을 무릎 위로 들어 올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동 중이나 베기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체인 브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KOSHA GUIDE : P - 51 - 2010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법령 중심의 CODE 개발보다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부착된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경고표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화학물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표지를 말한다.
- (나) “화학물질 등”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화학물질 단위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모두를 말한다.
- (다) “혼합물”이라 함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 (라) “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강제, 합금강제, 플라스틱,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마) “포장”이라 함은 화학물질 등이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 (바) “그림문자”라 함은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록 2>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사) “신호어”라 함은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기재되는 ‘위험’ 혹은 ‘경고’라는 문구를 말한다.
- (아) “유해·위험문구”라 함은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 (자) “예방조치 문구”라 함은 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경고표지의 구성과 내용

(1) 용기 및 포장에 부착된 경고표지의 크기는 용기 및 포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며, <부록 1>에 제시된 실제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예시를 참조한다.

〈그림 1〉 경고표지 양식












(2) 물질의 명칭 아래에 표시된 그림문자를 통해 화학물질 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의 그림문자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4) 〈표 1〉과 같이 물질의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1〉 위험성 및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표시하는 그림문자의 우선순위

해당되는 그림문자	→	표시된 그림문자
		
		
		

(가) 급성독성(1~3등급) 및 독성물질임과 동시에 피부자극성, 심한 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물질인 경우에는 급성독성(1~3등급) 혹은 독성물질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만 표시한다.

(나) 부식성 물질임과 동시에 자극성 물질인 경우에는 부식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만 표시한다.

(다) 호흡기 과민성 물질임과 동시에 피부 과민성 물질인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만 표시한다.

(5) 화학물질 등의 유해·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 혹은 '경고'의 신호어가 제시되는데,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을 기재한다.

(6)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의 신호어가 '경고' 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 인화점은 23 ℃ 이상이므로 주변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위험이 있다.

(나) '경고' 수준의 인화성 금속분말은 연소시간이 5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경고' 수준의 인화성 비금속 분말은 습윤 부분이 연소를 4분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15 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화학물질의 위험요인 파악과 대응

5.1 화재 폭발 위험 및 대처방안

(1) MSDS 제2항(유해성·위험성) "다" 호에 표시된 화재 위험성이 2 이상인 물질을 취급한 경우 제5항(폭발·화재시 대처방법)에서 제안하는 소화제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MSDS 제5항 "나" 호에 열분해 생성물이 인화성이거나 독성물질인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화재를 대비한 개인보호구 선정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 호에 제시된 개인보호구를 화재진압 시 착용할 수 있도록 방재도구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MSDS 제5항 "나" 호에 화재 및 폭발위험으로 제시된 문구를 참조하여 취급 및 저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에 노출되면 발화될 위험이 있는 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5.2. 물리적 특성 및 취급방안

- (1) MSDS 제9항(물리화학적특성) “바” 호(초기 끓는점 및 끓는점 범위), “카” 호(증기압)를 참조하여 누출된 물질이 증기상태로 확산되는지 액체상태로 확산되는지 파악한 후 제6항(누출사고시 대처방법)에 따라 누출지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MSDS 제9항 “파” 호(증기밀도)의 값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누출된 증기는 바닥으로 확산되므로 바닥이나 지하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바닥이나 지하에 정체될 우려가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하거나 정체 위험지역의 가스농도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증기밀도를 참조하여 가스감지기의 설치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MSDS 제7항(취급 및 저장방법)의 권고사항에 따라 저장장소의 온도, 압력을 확인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0항(안정성 및 반응성), “다” 호에 제시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3. 독성허용농도 및 취급방안

- (1)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이 작업장에 누출되어 MSDS 제8항(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호에 제시된 국내외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완전밀폐형의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완전 밀폐형의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을 취급할 때에 제8항 “다” 호에서 제시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MSDS 제6항 “나” 호를 참조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 작업장 바닥은 화학물질 등이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 (나) 유출 시 유출지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류둑이나 홈(Ditch)을 설치한다.
 - (다) 유출된 화학물질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흡습포 등 방제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6. 화학물질 안전관리

6.1. 일반사항

- (1) 화학물질 저장, 취급 및 제조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① 위험성 평가 : 화학물질 저장, 취급 및 제조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 있는 위험요인의 도출 및 그로 인해 예측되는 결과 파악
- ② 예방조치 결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 파악
- ③ 유출방지 및 관리 : 화학물질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대책 파악
- ④ 안전대책의 유지 : 안전대책의 적용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 ⑤ 작업환경 측정 : 화학물질 등의 노출 정도 측정 (적정한 관리 여부 확인)
- ⑥ 작업자 교육 및 훈련 : 화학물질 등의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2) 화학물질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사항을 고려한다. 이때 우선되는 사항을 적용하기에 현저히 어려울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화학물질 등의 저장, 취급 및 제조설비를 완전 밀폐형으로 관리
- ② 개방이 필요한 부분에는 국소배기설비 설치
- ③ 해당 작업장에 일반 환기설비 설치
- ④ 화학물질 등이 쏟아지거나 누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 및 절차 수립
- ⑤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 및 작업시간을 최소화


6.2. 취급 전 안전대책

- (1) 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기 전에 경고표지에 나타난 유해 · 위험 문구를 확인한다.
- (2) 유해 · 위험문구에 인화성이 언급되었다면 MSDS를 확인하여 인화점과 가연범위를 확인하여, 인화점이 대기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 저장 및 취급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거나 실내일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누출 가능성에 따라 가스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 공기 중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를 넘을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환기 및 국소배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공기 중 농도가 LFL의 1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다) 저장 및 취급 장소는 화학물질의 누출 가능성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방폭전기 · 기계기구를 사용한다.

- (3) 화학물질의 예방조치문구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필

- (5)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누출 시 대응방안에 대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6.3. 취급 중 안전대책

- (1) 화학물질 취급 중 누출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화학물질 취급 중 누출되더라도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3) 화학물질 취급 중 누출되었을 때에는 경고표지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
- (4) 화학물질 취급 시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구 및 방제도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 방법 및 비치위치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록 1〉 경고표지의 예시

[illegible]

〈부록 2〉 그림문자의 종류 및 유해·위험성 분류

	
인화성(가스, 액체, 고체, 에어로졸), 물반응성, 자기반응성(형식B~F), 자기발화성(액체, 고체), 자기발열성	폭발성(~등급 1.4), 자기반응성 (형식A~B), 유기과산화물(형식A~B)
	
산화성(가스, 액체, 고체), 유기과산화물(형식B~F)	수생환경유해성(급성 및 만성)
	
고압가스 (압축, 액화, 냉동액화, 용해가스)	급성독성(1~3등급), 독성 물질
	
급성독성(4등급), 피부자극성, 심한 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호흡기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금속 부식성 물질, 피부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등급 1.5)

*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험성연구팀(042-869-0321)으로 문의해 주세요.

GLOBAL SAFETY AND HEALTH

ILO, 사업주 자율규제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



ILO(국제노동기구)와 EU는 최근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통적인 규제방

식이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대안으로 사업주 자율규제(Self Regulatory) 모델을 도입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확실적인 안전조치를 지킬 것을 강제해 해 사업주의 형식적인 법령준수, 새로운 위험유형에 대한 대응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에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반해 사업주 자율규제는 사업장별 다양한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ILO와 EU는 지역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도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OSHMS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예방과 보상을 연계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ilo.org>

WHO, 동남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보건 강화



WHO(세계보건기구)가 동남아시아 산업보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보건 강화에 나섰다.

WHO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동일한 작업환경을 보이는 국가가 많아 상호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NGO, 학계, 산업협회, 유엔 관련기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보건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업보건'이란 목표 아래, 취약한 산업보건제도를 증진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와 지역 간의 산업보건 네트워크는 강화하고 결속력은 확장하면서 규범, 표준, 지침서, 모듈, 연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국제센터와의 파트너십과 관련 수행 부서와의 상호협력체계 역시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위험 노출 평가에 대한 표준방법, 위험별 특성에 따른 대응방법 및 지침서를 제작해 보건상의 위험에 대처하고, 각 국가와 지역별로 산업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who.int>

영국 Cardinus Risk Management,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사회·경제적 위험 강조



업무상 상해예방과 위험관리
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국

의 Cardinus Risk Management社は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상지장애를 비롯한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동안의 주요 판례 소개, 상지장애로 인한 기업과 사회의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상지장애는 근골격계질환의 한 종류로 손목관절증후군, 건초염, 건염상과염, 진동에 의한 백납병, 활액낭염, 요통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특정 업무상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만 산재로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EU에서 발표한 'Fit for Work'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2,4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골격계질환은 병가 원인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구적 신체능력 상실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60%에 달한다. 이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선진사례를 활용한 개입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철저한 위험성 평가방식과 업무복귀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Cardinus Risk Management : 영국의 디스플레이 장비 규제 및 평가, 화재 안전 및 위험 평가기관. 온라인을 통한 업무상 상해예방 및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출처〉 <http://www.ergojournal.co.uk/category/whitepapers/>

영국 산업보건협회, 평등법 발효로 건설현장에서 여성참여 확대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영국 평등법의 도입으로 인해 일부 남성 중심적이던 산업현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은 성별, 인종, 장애 여부, 임금, 신념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미 존재해왔던 차별금지 관련 9개 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 건설현장에서 여성 근로자는 13.5%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행정업무와 사무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여성에게 다소 불리한 각종 문제로 인해 갈수록 현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평등법 발효에 따라 앞으로 여성들의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간의 업무를 고루 배양함으로써 능력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性) 다양성이 실현되는 기업일수록 수익률, 영업이익, 주가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75% 높은 것으로 조사돼 건설현장에서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만으로도 재해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http://www.shponline.co.uk/features-content/full/construction-equality-street>

2010년도 11월 안전인증 현황

* 보호구

【 안전모 】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모	10-AV2CQ-0233	(주)한성세이프티	HS-A901c	ABE	10-11-01
	10-AV2CQ-0234	(주)한성세이프티	HS-A902c	ABE	10-11-01
	10-AV2CQ-0235	(주)한성세이프티	HS-P901c	ABE	10-11-01
	10-AV2CQ-0236	(주)한성세이프티	HS-P902c	ABE	10-11-01
	10-AV2CQ-0237	(주)한성세이프티	HS-FLA-1	ABE	10-11-01
	10-AV2CQ-0238	(주)에스탑	SHH-1101	ABE	10-11-26
	10-AV2CQ-0239	(주)에스탑	SHH-1201	ABE	10-11-26
	10-AV2CQ-0240	(주)에스탑	SHH-1103	ABE	10-11-26

【 안전화 】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화	10-AV2CR-0414	대동제화	DD-600	경작업용(중단화)	10-11-11
	10-AV2CR-0415	대동제화	DD-400	경작업용(단화)	10-11-11
	10-AV2CR-0416	대동제화	DD-608	경작업용(중단화)	10-11-11
	10-AV2CR-0417	대동제화	DD-800	경작업용(중단화)	10-11-11
	10-AV2CR-0422	(주)빅토스	PRO6-26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24	지벤세이프티	ZB-S71Z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25	지벤세이프티	ZB-S74Z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26	지벤세이프티	ZB-S75Z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27	지벤세이프티	ZB-S81Z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28	와이에이치코리아	COV-F501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29	세이투안전화	ST-407	경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30	세이투안전화	ST-606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31	세이투안전화	ST-625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32	주식회사 베스트	KC-301	경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40	태양안전상사	TY-400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41	태양안전상사	TY-401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42	태양안전상사	TY-603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29
	10-AV4CR-0433	(주)레오파드	NEPA-14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4CR-0435	(주)레오파드	NEPA-15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4CR-0434	(주)레오파드	NEPA-16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18	대동제화	보어	경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19	대동제화	알프스	경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20	대동제화	DD-401	경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21	대동제화	DD-601	경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36	중앙씨앤에스(주)	SH-104	경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39	(주)와이엔드케이상사	ps-403	보통작업용(단화)	10-11-12
	10-AV2CR-0423	(주)빅토스	PRO6-470	경작업용(단화), 미끄럼방지	10-11-12
	10-AV2CR-0437	(주)세몽나이스	BD-6-IS	경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38	(주)세몽나이스	CP-6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12
	10-AV2CR-0443	세이투안전화	ST301C	경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44	세이투안전화	ST602	경작업용(중단화)	10-11-29
	10-AV2CR-0445	세이투안전화	ST801C	경작업용(장화)	10-11-29
	10-AV2CR-0446	(주)지엔텍	YAK-18ZC	중작업용(장화)	10-11-29
	10-AV2CR-0447	(주)지엔텍	YAK-E01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29
	10-AV2CR-0448	(주)지엔텍	YAK-E02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49	군인공제회	JS9078C-HA	중작업용(장화)	10-11-29
	10-AV2CR-0451	(주)세몽나이스	SMK-4	경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50	군인공제회	JS9076C-DY	중작업용(중단화)	10-11-29
	10-AV2CR-0452	(주)슈맥스	SMC-643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29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화	10-AV2CR-0453	(주)와이앤드케이슈즈	EN-41A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54	(주)와이앤드케이슈즈	SAF-6000	보통작업용(중단화)	10-11-29
	10-AV2CR-0455	(주)영풍제화	YPP-436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56	(주)영풍제화	YPC-437	경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57	(주)영풍제화	YPC-438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58	(주)슈렉스코리아	SR-410N	경작업용(단화)	10-11-29
	10-AV2CR-0459	(주)슈렉스코리아	SR-606N	경작업용(중단화)	10-11-29
	10-AV2CR-0460	주식회사 베스트	KC-500	보통작업용(단화)	10-11-29

【 안전대 】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대	10-AV2CY-0265	국제안전물산(주)	K052-31	안전그네식, 1개 걸이용	10-11-10
	10-AV2CY-0266	국제안전물산(주)	K052-32	안전그네식, 1개 걸이용	10-11-10
	10-AV2CY-0267	국제안전물산(주)	K052-33	안전그네식, 1개 걸이용	10-11-10
	10-AV2CY-0268	국제안전물산(주)	K051-05	안전그네식, 1개 걸이용	10-11-10
	10-AV2CY-0269	(주)와이엔트케이슈즈	Y&K-100002	벨트식, 1개걸이용	10-11-25
	10-AV2CY-0270	(주)와이엔트케이슈즈	Y&K-100060	벨트식, 1개걸이용	10-11-25
	10-AV2CY-0271	(주)와이엔트케이슈즈	Y&K-100110	벨트식, 1개걸이용	10-11-25
	10-AV2CY-0272	(주)와이엔트케이슈즈	Y&K-100210	벨트식, 1개걸이용	10-11-25
	10-AV2CY-0273	(주)와이엔트케이슈즈	Y&K-100260	벨트식, 1개걸이용	10-11-25

【 방진마스크 】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방진마스크	10-AV4CT-0305	3M Company	6000시리즈전면형{6700(S),6800(M),6900(L)} + 7093C	직결식전면형 특급	10-11-19
	10-AV4CT-0306	3M Company	6000시리즈반면형{6100(S),6200(M),6300(L)} + 7093C	직결식반면형 특급	10-11-19
	10-AV4CT-0307	3M Company	6000DD시리즈반면형{6100DD(S),6200DD(M),6300DD(L)} + 7093C	직결식반면형 특급	10-11-19
	10-AV2CT-0308	온누리플랜(주)	ONW 9000H	직결식반면형 1급	10-11-11
	10-AV2CT-0309	온누리플랜(주)	ONW 9000L	직결식반면형 1급	10-11-11
	10-AV2CT-0310	온누리플랜(주)	ONW 9010H	직결식반면형 1급	10-11-11
	10-AV4CT-0311	3M Company	7770시리즈반면형{7771(S),7772(M),7773(L)} + 7744	직결식반면형 1급	10-11-29
	10-AV4CT-0312	3M Company	7770시리즈반면형{7771(S),7772(M),7773(L)} + 7744C	직결식반면형 1급	10-11-29
	10-AV4CT-0313	3M Company	7770S시리즈반면형{7771S(S),7772S(M),7773S(L)} + 7744	직결식반면형 1급	10-11-29
	10-AV4CT-0314	3M Company	750X SB1 시리즈반면형{(7501(S),7502(M),7503(L)} + 2078	직결식반면형 1급	10-11-29
	10-AV4CT-0315	3M Company	750X SB2 시리즈반면형{(7501(S),7502(M),7503(L)} + 2078	직결식반면형 1급	10-11-29
	10-AV2CT-0317	(주)블루인더스	BF130V	안면부여과식 특급	10-11-15
	10-AV2CT-0318	(주)블루인더스	BF110V	안면부여과식 1급	10-11-15
	10-AV2CT-0319	(주)블루인더스	BF100	안면부여과식 2급	10-11-15
	10-AV2CT-0320	도부라이프텍(주)	Cherry-3(F3)	직결식반면형 특급	10-11-18
	10-AV2CT-0321	(주)성진	SD1000	안면부여과식 2급	10-11-18
	10-AV2CT-0322	(주)성진	SD2000V	안면부여과식 1급	10-11-18
	10-AV2CT-0323	(주)코브인터내셔널	COVID-2011	안면부여과식 2급	10-11-23
	10-AV2CT-0316	세진물산(주)	SD-1068S	직결식반면형 특급	10-11-08
	10-AV2CT-0325	3M Company	8840	안면부여과식 1급	10-11-29
	10-AV2CT-0326	3M Company	8110S	안면부여과식 2급	10-11-29



Examination Info

* 안전보건공단 경영방침

건강한 일꾼 · 안전한 일터 · 튼튼한 사회

- 과학화(선택과 집중)
- 허브화(협력과 지원)
- 분권화(자율과 창의)
- 열린문화(소통과 배려)

* 고객불편신고센터

TEL(국번없이) 1644-4544 FAX 1644-4549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우리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설치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우편번호 403-711)
- 전 화 : (032) 5100-732~735
- 저희 공단 감사실 외에 지역본부장실 및 지도원장실도 부정·비리 신고센터입니다.

KOSHA 본부 · 산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032)5100-5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032)5100-831~4, 893~8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3 (032)5100-945~8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주)유한양행빌딩 14,15층 (02)828-1600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0 우리빌딩 7,8층 (02)3783-8300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강릉산업안전보건센터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033)655-1860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1 (032)5707-200
부천산업안전보건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54-8 삼진빌딩 2층 (032)6806-500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3층) (031)259-7149
성남산업안전보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06-2 소곡회관 4층 (031)785-3300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9-2 (031)4817-599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86-49 (051)5200-590~6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4,5층) (052)2260-515
경남지도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9 (용호동 7-3) (055)269-0510
경남동부산산업안전보건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9,20층 (053)6090-500
경북동부지도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4 MPZONE빌딩 1~4층 (053)271-2010
경북북부지도원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2-60 (054)450-80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8,9층 (062)9498-700
전북지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07-8 노동부 종합청사 3,4층 (063)240-8500
전남동부지도원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285 (061)689-4900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4층 (064)797-750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7 (042)620-5600
충북지도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1 한국통신빌딩 3층 (043)2307-111
충남지도원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725 (미래시티빌딩 5층) (041)570-3400

Quiz Quiz 다른 부분 찾기

아래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 동봉된 <독자엽서>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2011. 01

설 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e-mail :

□ □ □ - □ □ □


2011. 01

안전보건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1.1.1~2012.12.31

인천제양우체국 승인
제40042호

받는 사람  한국산업인진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교육미디어실 <고객평가> 담당자 앞

4 0 3 - 7 1 1

2011. 01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e-mail :

□ □ □ - □ □ □

2011. 01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1.1.1~2012.12.31

인천제양우체국 승인
제40042호

받는 사람  한국산업인진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교육미디어실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4 0 3 - 7 1 1



●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편집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내용구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제조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건설업 ☐ 교육서비스업
☐ 임업 ☐ 도·소매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음식업
☐ 건물종합관리업 ☐ 기타산업

규모 ☐ 5인미만 ☐ 5~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본 자료가 귀하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아니다

☒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 경영층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의 소리

◎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알려주세요.



2010년 12월호 당첨자 명단

장경연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정선희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2동
박종원 -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김성곤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지난호 정답





어짜나!

작업시간 좀 줄이려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떨어짐 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차량 뒤 탑승금지



작업자 보호구 착용



작업장 지형 미리 숙지

몸이 따뜻해야 안전지수도 쑥쑥!

겨울철에 우리 몸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심장마비등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업전에 따스한 작업복 등으로 추위에 대비하세요.

